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이웃에 사는 영웅

(The Hero Two Doors Down ·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김 햇 살

2018年 2月

이웃에 사는 영웅

(The Hero Two Doors Down·번역논문)

지도교수 김 원 보

김 햇 살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年 2月

김햇살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18年 2月

The Hero Two Doors Down
이웃에 사는 영웅

Haet-Sal Kim
(Supervised by Professor Won-B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February, 201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이웃에 사는 영웅

한 소년과 야구 영웅 사이의 우정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샤론 로빈슨

제시카와 루카스에게, 너희들은 내 날개나 마찬가지란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시에게, 당신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프롤로그

1959년 12월 5일은 내 인생 최악의 날이다. 나는 20살이었고, 브루클린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내 꿈은 언젠가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모범생이 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나는 또한 반항아이기도 했다. 내 반항의 주요 대상은 아빠였다. 아빠와 내가 함께 야구와 브루클린 다저스 팀에 대해 열광적으로 이야기 하던 소년 시절은 다 지나갔다. 최근에 우리 둘 사이에는 사랑보다는 갈등이 더 많았다.

그날 오후, 더 이상 그 싸움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수영시합이 끝나고 지치고 배고픈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문 앞에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는 걱정하는 듯한 얼굴이었다.

“스티브, 아빠가 집에 계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의사를 불렀단다. 아빠에게 가보렴.” 엄마가 말했다.

아빠가 오후에 집에 있다는 것은 정말 편찮으시다는 거였다. 나는 계단을 뛰어올라갔다. 마치 수영 시합에서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을 때처럼 내 심장이 뛰었다. 계단을 다 올라갔을 때, 차가운 침묵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어렸을 적 브루클린 지역을 꿈쩍도 못하게 만들었던 눈보라가 떠올랐다.

나는 부모님 방을 살짝 들여다봤다. 아빠는 숨쉬기도 힘들어 하면서 겹겹이 쌓인

베게에 몸을 누여 있었다. 눈을 감은 채 입만 벌리고 있었다. 그에게 달려가면서 나는 “아빠,” 하고 불렀다. 나는 몸을 숙여 아빠의 어깨를 흔들었다. “아빠?” 그는 말없이 숨을 들이 쉬었다. 나는 일어나서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계단에서 엄마를 지나치며 말했다.

밖으로 나가자, 빨갭게 달아오른 양 볼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나는 죽을힘을 다해 뛰었다. 세 블록 만 가면 유티카 가에 소방서가 있다. 거기에는 항상 구급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나는 열려있는 차고로 갔다. 차고가 텅 비어있는 것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다. 소방관 한명이 나를 도와주러 왔다. “애야, 무슨 일이니?” 그가 물었다.

“우리 아빠가 아파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울먹거렸다. “당장 구급차가 필요해요!”

“알았어,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그 소방관이 말했다.

“아빠가 숨쉬기 힘들어 해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설명했다.

“여기, 이름과 주소를 써주렴.” 내 앞으로 종이를 획 내밀며 그가 말했다. “내가 최대한 빨리 너희 집으로 구급차를 보낼게. 진정해. 넌 아빠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단다. 이제 집에 가서 구급차가 갈 때까지 기다리렴.”

집으로 가는 길에 식당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코오세르(유대의 율법에 따라 만든 음식을 파는 작은 식당), 베이글 가게, 포장 전문 중국음식점, 그리고 캐리비안식 식당이 나란히 서 있었다. 맞은편에는 피자가게와, 미국 남부 흑인들의 전통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로 유대인이 살고 있던 우리 동네는 브루클린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거야.” 아빠는 이렇게 말하곤 했었다.

아빠는 내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맨해튼의 마르켈의 5번가와 48번 도로가 만나는 곳에서 마르켈 신발 가게를 운영했었다. 이제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성화 만든다. “브루클린부터 맨해튼까지 뉴욕 전체에서 인종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는다면, 우리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 거야.” 아빠는 7번가와 28번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그의 새로운 가게에 앉아서 말하곤 했었다.

나는 집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며칠 후, 우리는 아빠의 장례를 치렀다.

우리는 시바(장례 후 7일간 동안 추모)를 지냈다. 시바는 유대인들의 추모 전통이다. 우리는 집에 있는 모든 거울들을 가려놓고, 앉을 때도 소파나 의자 대신에 상자들 위에 앉았다.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찾아왔지만, 나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이야기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피했다. 나는 화가 났고, 혼자 있고 싶었다. 친구들과 어울릴 기분이 전혀 아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두 번 다시 트랜지스터라디오를 머리로 눌러 켜지도 못할 것이고 거실에서 흑백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지도 못할 것이다. 다시는 자동차 엔진을 고치거나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

내방 침대에 누워서 아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종이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아빠 옷장에서 이걸 찾았어.” 침대 옆에 상자를 내려놓으면서 엄마가 말했다.

“그게 뭐예요?” 오른쪽 팔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나는 물었다.

“글쎄.” 엄마가 대답했다. “네 이름이 적혀있던데.”

나는 침대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상자 옆에 앉았다. 뚜껑을 열어 누군가 나에게 쓴 편지를 꺼냈다. 아빠가 쓴 편지였다.

편지를 보더니 엄마가 “혼자 있고 싶니?” 라고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는 일어서더니 내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기고는 방을 나갔다.

편지는 1957년 12월 28일에 쓴 것이었다. 2년 전 우리가 브루클린 다저스가 로스 엔젤리스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다. 아빠와 나에게는 특히 힘든 시간이었다.

스티브에게,

어젯밤에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하구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너와 내가 서로 한번 꼭 안아주고 싸움을 끝냈으면 하고 바랐단다. 하지만 우리 둘 다 고집만 세서는 더 이상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구나. 나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칭찬해야 했던 순간에도 너에게 잔소리만 늘어놓고 혼 내키기만 했던 것 같아. 너의 방이 지저분하다고 뭐라고 했었지. 사실, 너의 할아버지도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단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될까봐, 네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어른이 되는 법을 알려주려고 한단다.

네가 너의 어린 시절 보물들을 버려둘 때 마다, 나는 그것들을 이 상자에 모아두었다. 언젠가는 네가 이 물건들과 함께했던 추억 안에서 즐거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스티브, 과거는 종종 미래를 위한 안내자가 되기도 한단다. 이 상자 안에 그 안내자 역할을 할 물건들이 들어 있단다. 나는 네가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었는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빠가

편지가 내 손을 스룩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아빠 생각에 눈물이 났다. 인생이 항상 내가 원하는 답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던 아빠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 “폭풍우는 지나갈 거야.” 그는 말했다. “가족과, 믿음, 그리고 우정을 굳건히 지키렴. 아들아, 그들이 네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란다.”

나는 무릎을 꿇고 상자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상자 속을 뒤지다 내 손에 처음 잡힌 것은 바로 1948년 브루클린 다저스의 시즌 첫 홈경기 표이었다. 색이바랜 표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그날 내가 얼마나 흥분했었는지가 생각이 났다. 모든 것이 기억하고 있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나는 처음으로 그 표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제 1 장

1948년. 8살이던 나에게는 야구가 인생의 전부였다. 브루클린 다저스 팀을 응원했었다. 6주 후면 다저스는 에비츠 구장으로 돌아올 것이었다. 올해가 그해일 것이다. 나는 3번째 계단에서 현관으로 폴짝 뛰어내리며 생각했다. *아마 올해는 아빠가 오프닝 경기 표를 사서 나를 놀래어 주시겠지.*

“일어났니.” 내가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서 스크 의자에 앉자 아빠가 나에게 인사를 했다.

엄마는 몸을 숙이더니 내 이마에 뽀뽀를 해주었다. “잘 잤니.”

“좋은 소식이 있단다.” 브루클린 이글 신문 너머로 눈빛을 빛내며 아빠가 말했다.

“무슨 소식인데요?” 내가 물었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춘계훈련을 하고 있단다.” 아빠가 알려주었다.

“야호!” 내가 소리쳤다. “다저스 선수들은 어디에 있대요?”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지. 그리고 레오 듀로서가 다저스 팀 매니저로 복귀한단다.”

“그게 좋은 소식 이에요? 그는 해고당하지 않았나요?” 확실치는 않지만, 나는 다저스 팀이 지난해에 듀로서를 해고했다고 기억 하고 있었다. 나는 다저스의 모든 선수와 코치의 이름을 다 외우려고 했었지만, 정확하게 다 외우기가 쉽지는 않았다.

아빠가 싱긋 웃었다. “그의 사생활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듀로서는 훌륭한 매니저지. 그는 지난 시즌동안만 자격을 정지당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징계기간이 끝났으니 다시 돌아 올 거야. 그가 제대로 반성했길 기대해보자꾸나.” 그가 말했다.

레오 듀로서가 매니저 자리를 비웠을 때도 다저스는 지난 시즌 월드시리즈까지 진출했다. 양키즈와의 7차전에서 패하는 순간까지 아주 흥미진진했다. 동네 사람들 모두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한다. 이제 또 새로운 시즌이 곧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챔피언결정전까지 다시 올라 갈수 있을까?

“다저스는 어떻게 춘계훈련장소로 도미니카 공화국을 고르게 된 거죠?” 내가 물

었다.

“날씨도 좋고 물가도 저렴하단다. 게다가 브랜치 리키는 캐리비안에 있는 그 나라가 흑인선수들과 백인 선수들이 섞여있는 팀을 받아줄 거라고 판단했지. 하지만 이번이 그곳에서 훈련하는 마지막 해일거야. 내년쯤이면 다저스는 플로리다의 베로 해변에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거거든.

브랜치 리키는 내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다. 그 사람은 다저스의 단장이다. 작년에 그는 재키 로빈슨과 계약했다. 미국 흑인 선수가 메이저리그 팀에 속하게 된 경우는 재키가 처음이었다. 재키는 지난 시즌에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우승기를 거머쥐는데 큰 몫을 했다.

아빠는 신문을 접더니 그의 접시 옆에 내려두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글지에 기사가 실렸는데, 리키는 현명한 사람이고 그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 될 거란다.” 그는 이어 말했다. “다저스 팬들이 리키를 가까이서 보려고 떼를 지어 나타나고 있대.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재키가 백인 선수들과 같은 호텔에 머무를 수 있단다. 바뀌고 있어. 아들이야.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단다.”

나는 콘플레이크가 담긴 그릇에 우유를 따르고 우유가 담긴 컵에 네슬레 쿵을 숟가락으로 떠 넣었다.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하기 전에 나는 아빠를 쳐다봤다. “바뀌고 있다는 건 다저스 선수들이 돌아오면, 재키가 피, 위, 길, 칼, 그리고 랄프 브랑카 같은 다른 다저스 선수들과 같은 호텔에 머무를 수 있다는 뜻 이에요?”

“그건 어려울 것 같구나, 스티브.” 아빠가 대답했다. “여전히 남부지역에는 모든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은 따로 떨어져 있도록 하는 법들이 남아 있단다. 그런 법들을 없애기 까지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단다. 짐 크로우 법이 있는 남부지역 뿐만이 아니야. 북부와 중부지역에도 재키를 받아주지 않는 호텔들이 있단다. 하지만 다저스는 언젠가 팀 선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거야.”

아빠는 잠깐 멈춘 뒤, 곧 이어갔다. “좋지 않은 법들이 더 있지. 다저스의 스타 외야수인 피터 라이서는 발목을 다쳤었어. 심한 부상을 당하고 몇 년 후에, 사람들은 그의 야구선수로서의 경력은 끝났다고 말했지. 리키씨는 피터가 회복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올해 유급휴가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가 거절했단다.”

“피터는 리키의 말을 들어야 해요.” 내가 말했다. “그렇죠, 아빠?”

“아마도 그렇겠지. 피터의 선수생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지켜봐야겠지. 재

키 로빈슨도 문제가 좀 있단다.”

나는 초코우유를 거의 벌컥 쏟을 뻔했다. “재키요?”

“그래, 그가 지난 시즌에 신인선수상을 받았다고 해도 그는 몸무게가 11킬로그램 정도 초과된 채 올해 춘계훈련에 나타났지.”

“그래서 그가 체중 조절을 하고 있나요?”

“빠르게 체중을 줄이겠지. 듀로서는 너무 화가 나서 재키에게 할망구라고 했단다. 듀로서가 재키에게 열심히 달리기를 시키고 땀을 내도록 해서 체중을 빠르게 줄이게 할 거야. 식단조절은 할 필요도 없을걸.” 아빠가 웃었다.

불쌍한 재키, 나는 생각했다. 내 친구 중 한명인 다니엘도 과체중이었다. 저런 아이들이 그를 놀렸었는데! 그가 마지막 종이 울리기 전에 울면서 학교를 뛰쳐나갔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다음날, 교장선생님이 다니엘을 놀렸던 아이들에게 벌을 주었지만, 나는 그 일이 다니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만약 재키가 체중을 줄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는 약간 찡그린 얼굴이었다. 선발 선수 명단에서 밀리겠지.” 그는 대답했다.

재키를 선발에서 빼다니!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나는 생각했다.

아침 식사 후에 나는 친한 친구인 세나를 우연히 만났고, 우리는 P.S. 244 초등학교까지 두 블록을 같이 걸어갔다.

“다저스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춘계훈련을 시작했다.” 우리 발걸음이 똑같이 지나자마자 내가 말했다.

“좀 이상한데.” 그녀가 대답했다. “왜 그들은 양키즈 팀처럼 플로리다에서 훈련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플로리다에 있는 그들의 훈련시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설명했다. 세나는 내가 알기로 다저스보다 뉴욕양키즈를 더 좋아하는 유일한 브루클린 출신 아이였다. “나는 재키와 피터 라이저가 조금 걱정돼.” 내가 덧붙였다.

“왜?” 세나가 물었다.

“재키는 과체중이고, 피터는 부상을 당했어.” 내가 대답했다.

“만약 그들이 양키즈를 이기겠다고 생각하면 분명 더 빨리 회복 할 수 있을 텐데! 너도 알잖아. 작년 월드시리즈가 어땠는지...” 세나가 말했다.

나는 세나를 힐끗 쳐다봤다. “올해는 작년 같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애, 수업 끝나고 같이 놀자.” 그녀가 말했다.

“스틱볼?” 내가 재안했다.

“너무 추워.” 세나가 대답했다. “우리 집에 와서 스크래블 할래? 엄마가 에그 크림 만들어 줄 텐데.”

“폭스 유 벳 시럽도 넣어서?”

세나가 끄덕거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엄마한테 가도 되는지 물어볼게.” 내가 말했다. 입에서는 벌써 초콜릿시럽과 크림, 그리고 탄산수가 섞인 음료의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다시 말썹 안 부릴 거지, 그렇지?” 세나가 물었다.

“절대 안 그러지, 그런데 말리켄 선생님이 집으로 또 편지를 보냈어.”

“알 것 같다. 숙제를 안 해 온 것 때문에?”

“그래,” 내가 대답했다. “다행히 편지에 쓴 내용은 그게 전부야.”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주에 문제가 좀 있었어.”

“무슨 일이야?”

“별건 아니야...” 나는 웃으면서 이야기 했다. “내가 음악시간에 맨 뒷줄에 앉아 있었는데, 바이올린 파트가 쉬는 부분이어서 심심하더라고. 분명 조시도 심심해 보였어. 그래서 뭔가 재밌게 해주고 싶은 거야. 내가 조시 뒤에 있는 블라인드 줄을 당겨서 개 바지에다가 묶었어. 수업 종이 치니까, 조시가 선에 묶인 줄 모르고 벌떡 일어났거든. 개 바지가 찢어져서 반 애들 모두가 개 속옷을 보고 말았지. 블라인드가 중간에서 찢어지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스테판!” 세나가 소리쳤다.

“조시가 얼굴이 빨개져서 나한테 엄청 화를 냈어.” 나는 계속 이야기 했다. “낄낄 거리면서 애들이 우리 주변으로 몰려들고, 조시는 선을 풀려고 버둥거렸지.”

“이 이야기가 웃긴 이야기로 끝나니, 안 좋은 이야기로 끝나니?” 세나가 물었다.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음악선생님이 황급히 교실로 들어오셨는데, 그때가 조쉬가 막 나를 한 대 치려고 할 때였거든. 선생님이 우리에게 걸어오더니

조시를 교장실로 보냈고, 조시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바지를 가져와달라고 했어. 나는 말리켄 선생님한테 보내졌지. 선생님이 나한테 방과 후에 남아서, 교실 6개에 있는 칠판을 다 닦으라고 시켰어. 그리고 최후의 경고를 날리셨지. 선생님이 심지어 우리 집에 직접 오셔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 하겠다고 했다니까.”

세나의 눈이 커졌다. “웬지 결말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세나가 걱정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틀 전에 로빈이랑 내가 운동장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웠거든. 내 생각에 말리켄 선생님이 나한테도 그러실 것 같아.”

“선생님이 진짜 우리 집에 오실 것 같니?”

“아마도.” 세나가 말했다.

“아이! 시기가 안 좋은데.”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왜?”

“야구 시즌이잖아, 바보야. 다저스의 시즌 첫 홈경기에 너무 가고 싶단 말이야.” 내가 대답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숙제를 잘 해보면 어때?” 세나가 물었다.

“그래야겠어, 그리고 꼭 제시간에 낼 거야.” 세키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고 같이 교실로 걸어가면서 덧 붙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나는 3층 복도에서 스틱볼을 하다가 걸렸다. 난 이제 끝났다. 두려움에 떨면서 나는 교실 밖에서 세나를 기다렸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세나가 문 앞에 오자마자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런, 스틱볼. 무슨 일이야?”

“따라와 봐.” 내가 강요하듯 말했다. 우리는 다른 학생들이 모르게 살금살금 움직였다. “말리켄 선생님이 교장선생님한테 우리 집에 방문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

“오늘? 너희 집에?” 세나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 내가 대답했다.

“선생님이 집에 오시지 않도록 설득할 수는 없을까?”

“어떻게?”

“나도 몰라. 그런데 밖에서 기다렸다가 말리켄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와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지켜보자.” 세나가 말했다.

“그 다음에는 어떡해?” 내가 물었다.

“만약 선생님이 너희 집으로 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막아야지.”

“네가 선생님한테 너희 엄마가 아프셔서 집에 누가 오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되잖아.” 세나가 제안했다.

“그건 거짓말이잖아.” 나는 단호히 말했다.

“무슨 방법이든 생각 해내야 해. 나만 따라와.” 세나가 내 셔츠 깃을 핵 잡아당겨 끌고 가면서 말했다.

겉을 먹은 채, 학교 건물 그림자 아래에서 웅크리고 기다렸다. 우리 선생님이 인도까지 걸어왔을 때, 우리는 갑자기 행동을 시작했다.

“말리켄 선생님” 내가 소리쳤다.

“저기요, 말리켄 선생님.” 세나가 불렀다.

선생님이 우리와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키가 세나와 나보다 많이 크지 않은 체구가 작은 여성이었지만, 세나와 함께 그녀에게 다가갈 때 겉을 먹었다. 나는 도움을 청하려고 세나를 쳐다봤다. 나는 세나가 말리켄 선생님에게 손을 뺀는 걸 보고 놀랐지만, 나는 그녀를 따라했다. 우리는 함께 말리켄 선생님을 밀었고, 그녀가 생울타리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려고 울타리 위로 손을 뻗었지만, 나는 그녀를 도와주려고 모여든 수십 명의 엄마들과 할머니들에 의해 옆으로 밀려났다. 그들이 앞 다투어 그녀를 도와주었다. 나는 한 무리의 화난 아줌마들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선생님에게 끌려 집에 가느라 세나와 찢어졌다.

처벌은 신속하게 내려졌고 혹독했다. 열흘 동안의 정학 처분을 받고 집에서도 이것저것 구속받았다. 나는 다저스의 첫 홈경기에 갈 기회를 망쳐버린 것이다.

제 2 장

선생님을 밀어 버린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대가를 치렀다. 열흘 동안 온갖 집안일을 해야 했다.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내다 버려야 했다. 내 방도 깨끗이 청소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이불을 개야 했다.

가장 최악의 벌은 라디오를 들을 수도 없고, 아빠에게 춘계훈련에서 다저스 팀이 잘 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너무 지루했다. 나는 징계 조치를 끝내기 위해서 최대한 착하게 굴어야 했기 때문에, 아빠를 귀찮게 굴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안한 숙제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나는 너무너무 궁금했다. 그들이 이겼을까? 재키가 살을 뺐을까? 이걸 고문이었다.

열흘이 지나고, 아빠가 나를 거실로 데리고 왔다.

“말리켄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그가 말했다. “선생님이 내가 보낸 사과 편지와 숙제를 받으셨다는 구나. 너의 정학 조치는 풀렸단다.”

“그 말은 이제 제가 아침에 학교에 가도 된다는 뜻인가요?” 내가 물었다. 친구들과 열흘 동안이나 떨어져 있었더니 학교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웠다.

“이제 돌아와도 좋다는 구나, 스티브. 문제는...너는 학교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니?”

“많이 반성했어요.” 내가 말했다.

아빠는 궁금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뭘 반성했는데, 아들?”

“제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랑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건 중요한 거란다, 스티브.”

“그럼 제가 학교로 돌아가도 되나요?”

“학교가 정말 그리웠지, 안 그러니?”

“열흘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내가 수긍했다.

“내일부터 학교에 가도 좋단다.” 아빠가 말했다.

“집에서는...여전히 벌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란다, 스티브. 엄마와 나는 네가 집안일을 기꺼이 도와주려하고 태도도 긍

정적으로 변한 게 마음에 들어. 우리는 네가 계속 이렇게 했으면 한단다. 학교생활도 마찬가지로란다. 말리켄 선생님이 우리에게 매일 보고를 해주실 거야. 너는 나가 놀기 전에 학교숙제를 끝내야 해. 그리고 반드시 제시간에 숙제를 제출해야 해. 스티브, 단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야. 너는 충동적인 너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말썽을 피우게 될 거야. 알겠니?” 아빠가 말했다.

“물론이죠. 뒷일을 생각도 않고 행동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야지.” 아빠가 대답했다.

“알겠어요, 아빠.”

“그래, 가서 아침을 먹자구나. 엄마는 특별한 날을 위해서 팬케익을 아껴두고 있었지. 오늘은 팬케익을 먹을 만한 날인 것 같구나. 그렇지 않니?”

“가장 최고의 날...다저스의 시즌 첫 홈경기 다음날이죠, 물론.” 내가 대답했다. “저는 아빠가 스포츠 신문을 제게 읽어주던 것이 너무 그리웠어요. 먹으면서 다저스에 대해 이야기해도 되요?”

아빠가 웃으면서 내 어깨에 팔을 둘렀다. “물론이지. 나도 너와 새로운 소식들을 이야기 하던 것이 너무 그리웠단다.”

팬케익을 입에 물고 초콜릿 우유를 후루룩 마시며, 나는 질문을 던졌다. “재키 몸무게는 어떻게 되었어요?”

“줄어들었지.” 아빠가 나에게 말했다. “여전히 더 줄여야 해.”

“재키는 해낼 거예요, 아빠. 그럴 거라고 믿어요.” 나는 말했다.

“또 다른 소식들이 있어...에디 스탕키가 보스턴 팀으로 이적했어. 피터 라이저는 일단은 건강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가 1루수야, 재키는 늘 지키던 2루를 지키고 있단다.”

“이런, 아빠 제가 춘계훈련을 전부 놓친 건가요?”

“아니야, 하지만 다저스는 춘계훈련이랑 베로 비치에서 시범경기를 마무리하려고 한단다. 그 후에는 그들은 남부 지역의 도시들을 쭉 돌면서 친선경기를 할 거야.”

“친선경기를 해요? 그건 팀이 연습경기를 하려고 도시들을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 그건 팀의 전열을 갖추는 좋은 방법이지. 시범경기도 하고 말이야.”

“홈으로는 언제 돌아오나요?”

“4월 말쯤에 온단다, 아들이. 시간이 좀 남았단다.” 아빠가 대답했다.

“우리가 에베츠 구장에서 열리는 첫 홈경기에 갈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물었다.

아빠가 웃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몇 주 지켜보자꾸나. 다저스 시즌 경기는 9개월 동안 이어질 테니. 분명 한 두 경기정도는 볼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말했다.

“알겠어요.” 기대에 부풀어서 내가 대답했다. “세나에게 전화해서 스틱볼을 할지 물어봐도 되나요?”

“엄마가 허락한다면,” 아빠가 대답했다.

한 시간 후에, 나와 세나는 막대기와 스피닝 볼을 챙겨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 운동장으로 갔다. 다른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코트를 다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학교 애들과 함께 경기를 시작했다. 친구들과 밖에서 노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다. 추운 날씨는 꺼릴 것도 없었다. 사실 뛰어다니기에 딱 좋았다. 나는 내 안짱다리를 한 영웅인 재키 로빈슨처럼 내 발가락을 안쪽을 향하게 한 채로 공을 쳤다.

나는 공을 잘 치지도 못했고, 달리기도 아주 빠른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내가 득점을 할 거라고 거의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나무 막대기를 아주 세게 휘둘러서 공을 쳤고 나는 베이스를 밟았다. 나머지는 더 쉬운 일이었다. 내가 뛸 기회가 왔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베이스를 돌았다. 나는 전력을 다했다.

나중에,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올 때, 세나가 한 흑인 가족이 5224 킬든가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사려한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그게 무슨 문제야.” 내가 말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오직 유대인들만 우리 동네에 살수 있대.” 세나가 우기듯 말했다.

“대체 왜?” 내가 물었다.

“아마, 그래야 우리 모두가 같은 교회당에 다닐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녀가 넌지시 말했다. “아니면 그래야 동네가 지금 이대로 유지되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브레이크를 세계 콧 밭고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내 친구를 돌아봤다. “집에 갈래.”

“왜 그러는 거야?” 세나가 물었다.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화가나!” 나는 자전거 페달을 빠르게 밟으면서 소리 질렀다.

“수투프볼 한 판 할래?” 세나가 제안했다.

“오늘은 안 할래.” 나는 그녀에게 다시 큰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왜 화가 났는지 내 자신도 이해가 안 갔지만, 내 친구가 한 말 때문인 것은 분명했다. 재키가 단지 그의 피부가 검다는 이유 때문에 다저스 팀에서 첫 시즌을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만 떠올랐다. 다른 선수들과 팬들은 야구를 백인들만 하는 경기로 만들려고 재키가 야구를 그만두게 하려고 했다. 재키는 적절한 타이밍의 도루와 강력한 스윙으로 맞섰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화가 나고 불만스러운 상태였다. 부엌으로 쿵광거리며 걸어가서는 간식을 집어 들고 방으로 갔다.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가장 아끼는 야구 카드들이 들어있는 깡통을 꺼냈다. 나는 카드를 분류해서 다저스의 선발 출장 선수들만 차례로 줄 세워 보았다. 재키는 나머지 카드 더미 안에 있었다. 과연 브루클린이 재키가 없었다면 월드시리즈를 이길 수 있었을까? 만약 재키가 다저스 팀이 아니라면 그들이 그 자리를 되찾을 수나 있었을까? 나는 궁금했다. 재키가 신인이던 해의 그의 기록을 훑어보았다. 타율.297에, 125 득점, 29도루를 해냈다. 그는 작년에 다저스가 우승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매우 인상적이군.” 나는 중얼거렸다. 카드 더미 위에 그의 카드를 다시 올려놓기 전에 나는 그의 카드를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신인상을 받았고, 그건 쉬운 일은 아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아빠에게 세나가 말했던 것을 이야기 했다.

아빠는 몸을 나에게로 기울이더니 내 이마에 아빠 이마를 갖다 대었다. “아들아, 그건 말도 안 된단다. 순전히 편견일 뿐이란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동안 엄마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구운 치킨과 당근과 섞은 삶은 감자를 올려놓고는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런 이웃들 중 몇 분이 아빠와 나에게 서명하라며 탄원서를 가져왔단다. 그 탄원서에는 털든가 5224번지를 흑인 가족에게 판매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단다. 나는 그 여자를 비난하는 대신에 그것을 찢어버렸단다.” 엄마가 말했다.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엄마?” 내가 물었다.

“그녀에게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그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

나는 허벅지 위에서 손을 접고는 손가락 씨름을 했다. 걱정이 되었다. 만약 그들이 동네에 흑인들이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이 야구를 하는 것도 또한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청원서가 재키를 다저스 팀에서 내쫓을 수 있을까?

“어째서요?” 내가 물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이 대화를 마저 하자꾸나.” 엄마가 제안했다.

아빠의 주도하에 기도를 하고나서 저녁을 먹었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갈색으로 구워진 부드러운 다리 부분 고기를 뼈를 바르면서 고개도 들지 않고 밥을 먹었다. 긴장된 침묵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내 머릿속에는 온통 야구 카드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나는 재키가 다저스 팀에 있는 것과 흑인 가족이 우리 동네에 이사 오는 것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배부르게 먹고 나서 나는 아빠를 응시했다. 나는 식사 분위기를 띄우고 싶었다. 그는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마 새로운 소식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

나는 아빠가 그릇을 앞으로 미는 것을 지켜봤다. 아빠가 목을 가다듬었다. “스티브, 편견이란 건 네가 어떤 사람을 그들의 성격이 아니라 그들의 피부색이나 종교에 따라 판단하는 거란다. 편견은 차별로 이어지지.”

“춘계 훈련동안 다저스 팀이 선수들 모두가 같은 호텔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경기를 해야만 했을 때, 재키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은 건가요? 내가 물었다.

“그렇지.” 아빠가 대답했다. “스티브 넌 이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1946년 재키는 플로리다의 몬드리올 로얄즈에서 다저스의 2군 팀과 훈련했었다. 재키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호텔들이 재키가 머무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지. 대신에 그는 흑인들이 사는 동네에 있는 개인 집에서 머물렀단다.”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내가 말했다.

“그렇지, 아들이야. 그게 바로 브랜치 리키가 1947년 다저스 팀의 훈련을 쿠바에서 하고, 올해에 그들을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데려간 이유란다. 작년에 재키 로빈슨이 피부색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수년 동안 흑인 선수들과 라틴계 선수들

이 그들의 피부색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야구를 할 수 없었던다. 여전히 흑인선수를 영입하는 걸 망설이는 야구팀들이 많단다. 그런데 이런 차별은 우리 주변에서도 늘 있는 일이야.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인종이거나 외국에서 온 가족들 또는 유대인 가족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아파트나 집을 사거나 빌릴 수도 없지. 편견과 차별은 잘못된 것이란다, 아들아.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을 거야.”

나의 다저스 팀과 우리가족을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왜 세나네 엄마는 우리 동네에서 흑인 가족을 내쫓길 원하죠?” 내가 물었다.

“스티브.” 엄마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세나 엄마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른단다. 몇 년 동안 이 동네는 유대인들만 사는 동네였단다. 세나 엄마는 아마 세나에게 왜 일부 동네사람들이 우리 동네가 바뀌는 것을 무서워하는지를 설명한 걸지도 몰라.”

“엄마 말이 맞아. 우리는 오직 자신 스스로를 대변할 뿐이야. 우리 가족은 역사 속에서 유대교 신자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학대받았는지 기억한단다. 그런 경험이 우리를 어떠한 차별에 대해서도 반대하도록 하는 거란다.

“그게 무슨 말 이에요?” 내가 아빠에게 물었다.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아빠의 부모님이 그들이 20대였을 때 미국을 위해서 러시아에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니?”

“그럼요.” 내가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씀하실 때 여전히 그 역양을 쓰시잖아요.”

“그들은 다른 이백만명의 유대인 가족들과 함께 그들의 종교를 실천할 자유를 찾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기 위해, 그들의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그들의 가족을 부양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러시아로 도망갔단다.” 아빠가 설명했다.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은 심하게 학대 받았어.” 엄마가 거들었다. “그들에게 많은 폭력이 가해졌단다. 그리고 많은 남자와 여자들 아이들은 순전히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다치거나 살해당했단다. 그들은 그들의 집을 포기하고, 유대교 회당을 폐쇄하고, 극한 빈곤 속에서 아주 북적거리는 조건 속에서 살도록 강요받았단다. 러시아의 유대인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고, 그들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

는데도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다는 희망으로 이런 끔직한 환경에서 도망쳤단다. 이건 한참 전에 일어난 일이란다. 너와 너의 아빠,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 일이지.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미국으로 이민 올 용기가 있었던 분이셨단다.”

“맞아, 스티브.” 아빠가 말했다. “그분들의 용기 덕분에 편견이나 차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는 거란다. 몇몇 우리 이웃은 다른 신념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동네에 들이는 것이 그들의 삶을 위협 할까봐 걱정하는 거란다. 우리는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나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오는 걸 환영한단다.”

“우리가 탄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에서란다.” 엄마가 말했다. “탄원서 때문에 흑인 가족이 이 동네에서 집을 사지 못 할 수도 있단다. 그래서 아빠와 내가 서명하지 않은 거야.”

나는 부모님의 말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잠시 앉아있었다. 그들의 말을 이해를 하긴 했지만, 야구팀에 대한 것만 이해가 갈 뿐이었다. “재키 로빈슨은 흑인 선수와 백인 선수를 다 합쳐서 다저스 팀의 역대 가장 훌륭한 선수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다저스 팀은 마침내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재키가 뭘 해내는지 보게 될 거예요. 나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것 참 괜찮은 비유구나, 아들이. 어떤 사람들은 백인들만 야구를 하기를 원했었단다. 그러나 재키가 신인상을 받고 다저스가 성공한 이후에 그들은 교훈을 하나 배웠단다. 사람들을 피부색이나 종교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나아질 수 있단다. 그래야 우리는 다함께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 거야.”

나는 활짝 웃었다.

내가 보기에, 일단은 재키가 무사할 것 같았다.

제 3 장

다음날, 세나가 나를 잡아끌었다. “아직도 나한테 화났니?” 그녀가 물었다.

“그건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다행이다. 왜냐하면 너랑 같이 과자점에 가서 밀크셰이크 사먹으려고 내가 내 돼지저금통에서 돈을 좀 꺼냈거든.”

“좋아.” 내가 말했다. “오래 있다가지는 못하긴 하지만.”

“나도 오래 못 있어.”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는 조용히 젠킨스 과자점으로 걸어갔다.

“사실 너한테 화났던 건 아니야. 그냥 화가 났었어.” 나는 가족으로 덮인 스톨에 앉아 바닐라 셰이크 두 개를 주문하면서 세나에게 말했다.

세나는 당황한 것 같았다. “우리 아빠도 엄청 화를 냈었어. 특히 엄마가 아빠한테 몇 몇 이웃이 우리 동네에 흑인들이 살지 않길 원한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사람들에게 보내서 서명하라고 했다고 말하니까, 엄청 화를 냈지. 엄마가 몇몇 이웃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어. 엄마도 처음에는 두려웠대, 하지만 지금은 변화를 두려워 할 필요도 없고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대.”

“우리 집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어.” 내가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그 종이에 서명 안한다고 했대. 나는 다저스가 다시 백인선수들만 있는 팀이 되는 게 너무 싫어.”

“맞아, 재키가 브루클린을 얼마나 흥분시켰다고.” 세나가 동의했다.

“그래. 재키가 다저스 팀에 합류한 다음부터 또 다른 두 팀이 흑인 선수와 계약했어. 클리브랜드가 래리 도비를 인디언스 팀에 영입했어. 행크 톰프슨은 세인트 루이스 브라운스 팀에서 뛰고 있어. 그리고 지금 리키가 다저스의 최고 포수 유망주인 로이 캄파넬라를 마이너리그에서 빼내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가 시즌 첫 경기까지 그걸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세나가 물었다.

“그러길 바라야지.” 내가 말했다.

“거기 갈거니?”

“아빠가 출근해야 한다고 엄마한테 말하는 걸 들었어.” 내가 투덜거리며 말했다.

“우리 아빠는 시즌 첫 게임 표를 냉장고에 붙여두셨어. 아빤 그 얘기만 해.” 세나가 말했다.

“너도 데려간대?” 내가 물었다.

“장난해? 난 우리 가족 중에서 유일한 양키즈 팬이라고. 아빤 나를 다저스 경기장에 데리고 가는 돈 낭비는 안할 걸.”

나는 웃었다. “아마 다저스가 월드시리즈에서 양키즈를 쓰러뜨린다면 넌 가게 될 거야.”

“상상은 자유지.” 세나가 말했다.

밀크셰이크를 다 마시고 나서 우리는 우리 집 현관까지 달리기 시합을 했다. 세나가 한발 차로 이겼다. 나는 당황해서 다시 하자고 졸랐고, 결국 내가 이겼다! 우리가 화해하게 되어서 다행이었다.

얼마 후 아빠가 내방 문 사이로 얼굴을 빼꼼 내밀었을 때, 나는 수학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빠 왔다, 아들.” 그가 인사를 건넸다. 마치 비밀을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아빠의 얼굴가득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셨어요, 아빠.” 퇴근 후에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이 별로 없었던 아빠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말했다.

“좋은 소식이 있단다.” 아빠가 내 방으로 들어오면서 말했다.

“첫 게임 표를 구했어요?”

“아니, 스티브. 첫 게임 표는 없단다.” 아빠가 대답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다저스의 시즌 첫 홈게임에 못 갈지도 모르겠네, 내가 생각했다. 아빠가 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실망시켜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 소식을 들으면 네 기분이 좋아질걸. 우리가 털든 가 5224 번지를 사려고 하는 흑인 가족에 대해서 얘기 했던 거 기억하니?”

“그럼요. 기억하죠.”

“글쎄, 그들이 결국 샀단다. 팔린씨 가족이 곧 이사 올 거래.”

“그 종이들이랑 흑인 가족이 이사 오는 걸 원하지 않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은 두어 사람뿐이었던단다.” 아빠가 설명했다. “이웃사람들

대부분이 네 엄마와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이었던 거지. 팔린씨 가족은 이웃사람들과 어떤 문제도 없을 거란다. 그들이 환영해 줄 거거든.”

“그게 좋은 소식 이에요?” 내가 물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아빠가 대답했다. “그 집을 팔린씨 가족에게 판 부동산 중개인이 우리 신발가게의 손님이거든. 그가 오늘 왔는데 팔린씨가 집의 맨 꼭대기 층을 다저스 팀의 어떤 선수에게 빌려주기로 했다고 했대!”

나는 내 책상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빠와 마주봤다. “정말 이에요?” 선수들이 브루클린의 평범한 동네에 살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 집 근처에 다저스의 선수가 살게 되는 행운이 나에게 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그 선수가 누구예요, 아빠?”

“그게 말이지.” 아빠가 말했다. “그 친구가 그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하 더구나. 내 생각에 그들은 아직 임대 계약이 체결되기를 기다리는 중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린 그냥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구나.”

“에이,” 나는 탄식했다. “이런, 아빠...피 위 일거 같아요?”

아빠가 일어났다. “나도 모르지.”

“혹시 재키?”

“스티브, 추측은 그만두렴. 곧 알게 될 테니까.”

나는 그날 잠들 수가 없었다. 새로운 이웃을 생각하느라 밤을 꼬박 새웠다. 야구 시즌이 끝나면 선수들은 보통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들었다. 시즌이 시작하면 그들은 팀이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새로운 집을 얻어야 했다. 어떤 선수들은 개인 집을 빌려서 같이 살면서 에베츠 구장에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곤 했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아침식사 때, 나는 아빠에게 몇 가지를 더 물어보았다. “팔린씨네 가족이 흑인이니까 그들이 흑인가족에게 집을 빌려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로빈슨이나 아니면 로이 캄파넬라일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팔린씨네 가족이 흑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세입자도 꼭 흑인일거라는 법은 없지.” 아빠가 나에게 상기시켜주었다.

“맞아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건 맞잖아요.” 내가 강조했다.

“다저스 팀의 선수명단에는 40명이 있단다. 그들 중 한명이겠지.”

“분명 재키일 거예요.” 내가 말했다. 식탁에서 뛰어오르듯 일어나서 부엌 주변을 춤추며 돌아다니면서 소리 쳤다. “재키! 재키! 재키!”

“앉아라, 스티브” 아빠가 근엄하게 말했다. “넌 혼자 김치국을 마시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학교 가서 재키 로빈슨이 털든 가로 이사 올 거라고 떠벌리고 다니지 마라.”

“정말이에요...아빠? 다저스 팀 선수가 두 집 건너에 산다고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가 말했다. “이건 꿈이 이뤄진 거라고요.”

아빠가 빙그레 웃었다. “나도 안단다, 애야.”

그 후로 몇 주간은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다. 3월 말, 밴 한 대가 5224번지 앞에 섰다. 나는 잠바도 입지 않고 집을 뛰쳐나가서 계단 맨 위에 털썩 앉았다. 팔린 씨네 가족이 가구를 트럭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식사 준비가 끝나자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나를 불렀다.

“새로운 가족들이 이사하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그래, 나도 밴을 봤단다. 어린아이도 있었니?”

“남자아이 한명이랑 여자아이 한명이요, 하지만 십대인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네가 실망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니?” 엄마가 물었다.

“나는 그 차가 야구선수의 이삿짐 차인 줄 알았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스티브. 오늘 포트로스트(약한 불로 요리한 쇠고기 찜)를 만들어서 팔린 부인한테 주러 갈 거야. 같이 갈래?”

“당연하죠.” 내가 대답했다. “팔린 부인이 꼭대기 층에 누가 이사 올지 알려줄까요?”

“나도 모르지, 스티브. 너는 그 얘기를 떠내면 안 된단다. 우리는 팔린씨 가족이 새 이웃이 된 걸 환영하러 가는 거야, 그들의 사적인 일을 캐물으러 가는 게 아니란다.” 엄마가 한소리 했다.

“하지만 엄마...” 나는 투덜거렸다.

“5224 번지에 누가 이사 오든지 간에 사생활을 보장받길 원할 거야. 그들은 야구장에서 팬을 만나야 하거든. 그들이 집에 오면, 그들도 너희 아빠처럼 한 가족의 가장일 뿐이란다. 그걸 존중해 줘야해, 스티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요, 엄마. 귀찮게 굴지 않을게요.” 내가 약속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새로운 이웃에게 인사하러 갔다. 날씨는 추웠지만, 나는 땀이 났다. 팔린 부인이 꼭대기 층에 누가 이사 올지 알려주실까? 만약 유명한 선수가 아니면 내가 실망할까? 아니면 내 인생에 최고로 기쁜 소식을 듣게 될까?

초인종을 누르자 팔린 부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먼저 인사했다. “저는 사라 새틀로우예요. 그리고 애는 제 아들 스티븐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살아요. 털든 가에 이사 오신 걸 환영해요.”

“너무 고마워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팔린 부인이 말했다. “두 분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저는 엘리노어 팔린 이에요. 스티븐, 동네에서 내 아이들을 보게 될 거야. 그 애들이 너보다 나이가 조금 많단다. 개들은 털든 고등학교에 다닐 거야. 너는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맞니?”

“네, 팔린 아줌마.” 나는 예의바르게 대답했다.

“이사하느라 정신없을 것 같아서 제가 포트 로스트(야채를 섞어 만든 고기 찜) 좀 만들어왔어요.” 엄마가 납지에 쌓인 브라우니와 함께 여전히 따뜻함이 느껴지는 뚜껑이 덮인 냄비하나를 팔린부인에게 건네면서 말했다.

“냄새가 아주 훌륭한데요.” 팔린부인이 말했다. “고마워요.”

내 목덜미를 타고 땀이 흘렀다. 엄마가 화내겠지만, 팔린부인에게 그녀의 집에 이사 올 세입자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할까?

“브룩클린 다저스 팬이니, 스티븐?” 팔린 부인이 물었다.

“아주 엄청난 팬 이에요.” 나는 그녀가 그 이야기를 꺼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대답했다.

“어떤 선수를 가장 좋아하니?”

“재키랑 피 위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예요. 하지만 저는 랄프 브란카랑 칼 어스킨도 좋아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눈을 찡긋 거리며 팔린 부인이 대답했다.

“그런데,” 나는 더 물어보려다가 엄마를 올려다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다저스 팀의 선수 중 한명이 우리 위층에 이사 올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걸 알고 있단다.” 팔린 부인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잖아, 스티븐. 우리 남편이 나한테 우리 집에 들어올 세입자가 누구일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단다. 그래서 누가 이사 올지는 지켜봐야한단다.” 팔린부인이 따뜻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나는 좌절감 때문에 땅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누구도 나에게 기다리란 말을 하지 말란 말이야. 안 돼, 난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가 작별 인사를 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다.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 한 채 나는 엄마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잔뜩 화가 나서 나는 계단을 터덜터덜 걸어 올라갔다. “왜 그녀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전에 이야기 했던 이유들 때문이겠지.” 엄마가 말했다.

“난 아직도 왠지 재키일 것 같아요.”

그날 밤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셨을 때, 나는 현관 계단에 앉아있었다. 아빠가 내가 이웃집이 있는 곳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셨다.

“엄마가 그러는데 네가 오늘 팔린 부인을 만났더구나.”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에게 이 얘기를 언제 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봤단다.” 아빠가 말했다.

“무슨 얘긴데요?”

“팔린씨네 집을 누가 빌렸는지 나는 알고 있단다.” 그가 대답했다.

“누구예요, 아빠? 제발 말해주세요. 네?” 나는 애원했다.

“그들이 이사 올 때까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 아빠가 약을 올렸다.

“제가 기다리는 사람인가요?”

아빠가 씩 웃었다. “네가 아마 정말 좋아할걸.” 그가 말했다.

“아빠, 재키 로빈슨이 우리 이웃이 될지도 모른다는 건가요?”

아빠가 활짝 웃었다. “오늘 팔린씨를 만났단다. 재키와 그의 가족이 우선 4월 한 달 동안 집을 빌리기로 계약을 했다고 말하더구나.”

믿을 수가 없었다! 재키 로빈슨이라니! 기쁨의 환호를 지르며 아빠 품 안으로 폴짝 뛰어 들었다. 그러나 아빠의 웃음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곧 4월 1일이 다가오는데, 그는 만우절 농담을 좋아했다. 나는 아빠에게서 떨어졌다.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런 장난은 안하지, 아들.”

“정말 사실 이에요, 아빠?”

“정말이란다, 애야. 팔린씨가 로빈슨 부인이 그녀의 남동생 레이몬드, 그녀의 아들 재키 주니어와 함께 캐딜락을 몰고 오고 있다고 했어. 그들은 아마 뉴욕에 4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올 것 같아.”

“재키는요?”

“그는 여전히 팀 선수들과 친선경기를 하러 돌아다니 중이잖니, 스티브.”

“아, 그러네요. 맞아요. 재키의 아들이 제 또래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 애가 너보다 더 어릴 것 같은데. 곧 만나게 될 거야,” 아빠가 대답했다.

“분명히 그들이 내일 이곳에 올 것 같아요. 내일 학교 안가고 집에 있어도 돼요?”

“그 질문엔 대답할 필요도 없을 것 같구나, 스티브.”

나는 웃어넘겼다. “알았어요, 아빠, 하지만 이삿짐 차가 오면 아빠가 학교에 오셔서 절 데리고 가주실수 있나요?”

“안 돼.” 아빠가 말했다. “나는 일해야 하고 너는 학교에 있어야지. 너는 로빈슨 씨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한단다, 스티브. 재키에 대한 질문으로 로빈슨 부인을 화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나는 아빠가 있는 아래로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재키 로빈슨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온다는 것에 솔직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재키가 정말로 이사 오기 전까지 내 친구들 중 그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귀찮게 굴지 않을게요.” 나는 약속했다.

나는 현관에서 풀쩍 뛰어 내렸다. “시간을 재면요,” 내가 말하는 건 재키 로빈슨의 새 집 까지 뛰어 갔다 오는 것이었다. “얼마나 걸릴까요, 아빠?”

“빠르면 30초 정도 걸리겠지.” 아빠가 말했다.

“보세요. 내가 브루클린 다저스 선수와 그만큼 가까이 살게 된다고요!” 내가 소리쳤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세나와 나는 털든가 5224번지 밖에 이삿짐 차가 세워져 있길 바라며 집으로 뛰어오곤 했다. 4월 7일 수요일, 내 바람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이삿짐 차에 다가갔다. 마침 두 남자가 차 뒤 칸에서 황백색의 긴 의자를 들어내고 있었다.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사람들은 분명 내 코트 안에서 뛰고 있는 내 심장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나는 집 안을 너무나도 들여다보고 싶어 했지만, 세나가 내 손을 놔주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로빈슨네 가족을 엿보았다.

아무도 보지 못 한 채 한참을 그곳에 서있었다.

결국 세나가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내가 로빈슨네 가족을 보려고 거기서 있는 것을 우리 엄마는 원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도 집으로 갔다.

이런 기다림은 나를 미치게 해! 현관을 향해 걸어가면서 나는 실망스러워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걷어챘다.

“로빈슨네 집 밖에 이삿짐 차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이야기했고, 엄마가 문을 닫았다.

“알고 있단다, 애야.”

우리는 부엌에 앉아서 아삭아삭한 당근과 사과주스를 간식으로 먹었다. 나는 밖에 나가보고 싶어 안달이 나서 계속 이웃집을 쳐다봤다. “자전거 타러 가도 되나요?”

“아빠한테 로빈슨씨 가족을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니.” 엄마가 나에게 상기시켜주었다.

“난 그냥 그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 뿐 이예요.” 나는 주장했다.

“이사하는 날은 다들 지치 단다. 그들을 쉬게 내버려 두렴. 토요일에 벚꽃을 좀 꺾어서 로빈슨씨 부부에게 가져다주자꾸나. 어떠니?”

“알겠어요.” 나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현관에 앉아 있을게요.”

“마당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엄마가 나에게 말했다.

“안 나갈게요.”

나는 짐꾼 들이 마지막 가구 하나를 집안으로 옮길 때까지 계단 맨 위에 앉아있었다. 로빈슨 부인과 아들을 보긴 했지만, 재키는 없었다. 나는 침착하게 로빈슨네

가족에게 들키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재키가 나타난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나도 장담할 수 없었다. 긴장해서 속이 울렁거렸다. 이삿짐 차가 떠나갈 때쯤 나는 거의 울 지경이었는데, 엄마가 안에서 나를 불렀다.

토요일 아침, 나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다. 내 방 창문을 열고 머리를 밖을 내밀었다. 나는 엄마가 나를 안으로 끌어들일 때 까지 그러고 있었다.

“스티브,” 엄마가 야단쳤다. “창문 밖으로 내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니?”

“오, 엄마..나는 그냥 재키를 찾고 있었어요.”

“옷 갈아입으렴. 아침 먹고 나서 앞마당에 있는 나무에서 벚꽃을 좀 꺾어서 로빈슨네 집에 갖다 줄 거란다.”

나는 엄마 품으로 뛰어들고는 엄마의 양 볼에 부드럽게 뽀뽀를 했다. 그녀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엄마.”

웃으면서 엄마는 나에게 재키가 어찌면 여전히 친선경기를 하러 돌아다니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고 알려주었다. “실망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단다. 스티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엄마를 올려다봤다.

제 4 장

재키를 보기 위한 이 기다림의 시간은 나에게서는 더디게만 느껴졌다. 아빠가 나에게 함께 다저스의 라디오 경기 중계를 들을 나이가 되었다고 말했던 그 때부터 재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였다. 그때는 지난 6월 나의 여덟 살 생일날이었는데, 재키는 신인이었다. 아빠는 내가 진정한 다저스의 팬이 될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찌면 나는 에베츠 구장에 경기를 보러 갈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브루클린의 어느 따뜻한 여름밤이었다. 엄마는 아빠와 내가 현관의 계단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후라이드 치킨, 감자튀김, 샐러드 그리고 쿨 에이드분말 주스로 도시락을 싸 주셨다. 우리는 접시 사이에 작은 트랜지스터라디오를 두고 음식을 먹었다. 아빠는 맨 위 계단에 앉아 있었다. 나는 아빠 무릎 바로 아래에 앉았다. 우리는 라디오 볼륨을 크게 키우고는 음식을 조용히 씹었다. 나는 감히 말을 할 수조차 없었다.

경기가 시작할 때쯤이면 우리 이웃의 현관은 열렬한 다저스 팬들이 꽉 채우고 있었다. 몇몇 여자들은 흠어져서 아이들이 보도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접이식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 나도 조금은 놀고 싶었지만, 아빠의 목소리가 나를 계속 경기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재키 로빈슨은 신인이란다, 스티브.” 아빠가 말했다. “다저스가 1위를 달리고 있고 에베츠 구장엔 관중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 여기에 재키가 한 몫을 단단히 했지. 그는 타율이 3할이고 지금까지 홈런을 4개를 쳤단다. 그는 단지 그가 예전에는 백인 선수들만 했었던 야구를 하는 흑인 선수란 이유로 투수한테 네 번이나 맞았고, 욕을 많이 먹어왔지. 재키는 그런 압박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단다. 온 나라가 이제 브루클린에 대해서 알고 있어. 우리는 특별하지. 그건 자랑 할 만한 일이란다. 아들이야.”

아나운서가 재키를 소개하자마자 아빠는 이야기를 멈췄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타석에 들어선 재키에 대한 중계를 놓치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제 잘 들어보렴. 스티브. 내가 말하는 얘길 너도 듣게 될 거야.”

나는 오른쪽 귀가 플라스틱 상자에 거의 닿을 때까지 몸을 숙였다. 재키는 강타

를 치고 출루를 했고, 몇 분 후 투수를 위협하며 삼루까지 진출했다. *맙소사, 정말 빠르잖아, 나는 생각했다.*

“재키 로빈슨이 3루에서 크게 리드하고 있죠. 파이어리츠의 프리츠 오스터 물러의 와인드업을 지켜보다가 홈을 향해 내달립니다!”

나는 똑바로 일어나 앉았다. 긴장감이 뜨거운 공기 사이를 맴돌았다. 아빠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그 얼굴에는 재키가 메이저리그 야구에 진출한 이후 첫 도루를 했다는 사실에 기쁨이 가득했다. 아빠는 폴짝 뛰어오르더니 나를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우리의 기쁨의 환호가 동네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재키 로빈슨이야말로 내 선수지라고 생각했다!

그건 일 년 전의 일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나의 이야기*라는 재키의 책을 읽었고, 재키가 야구선수가 된 첫 해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게 될 때까지 재키의 야구카드를 살펴봤다. 다저스는 1947년에 처음으로 챔피언십 경기에서 백인선수와 흑인선수가 함께 경기를 했다.

1948년 이제 시즌이 막 시작하는 시점에, 올해 재키가 어떤 경기를 펼칠지 궁금했다. 더 중요한 일은 재키가 실제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다. 그래서 나는 재키가 살기로 한 집을 살펴봤다. 재키 로빈슨과의 만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실망하게 될까봐 걱정되었다. 나는 정말 내가 재키를 좋아하고 재키도 나를 좋아했으면 하고 바랐다. 하지만 만약 그가 너무 바빠서 내 존재를 모르면 어떡하지? 아니면 그가 나를 보고도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냥 어떤 소년이 유명한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 가능하거나 할까? 나는 재키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엄마, 재키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 방을 청소하는 중이었다. 엄마는 카펫 위를 청소기로 밀다 말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런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그는 분명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다.”

“그리고 훌륭한 야구선수이기도 하죠.” 내가 덧붙였다. “올해 그는 2루수를 맡을 거예요. 아빠가 그러는데 거기가 그에게는 제일 좋은 자리래요. 에베츠 구장에 가서 재키와 피 위가 같이 경기하는 걸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아빠가 어젯밤에 다저스 팀의 시즌 첫 경기가 4월 20일인데 자이언트 팀과

붙는다던데. 그리고 첫 홈경기는 4월 23일 이래.” 엄마가 말했다.

“2주도 안 남았네요!” 나는 소리쳤다.

“아빠가 다저스의 첫 홈경기에 절 데려갈까요?”

“나도 모르지, 스티브. 하지만 네가 집에서나 학교에서 계속 착하게 굴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엄마가 대답했다.

“최선을 다 할게요.” 내가 말했다.

“그래,” 엄마가 동의 했다. “이제 신발을 신고 아침 먹으러 부엌으로 내려오렴.”

엄마를 따라 부엌으로 갔다. 아빠는 이미 손에 신문을 쥔 채 식탁에 앉아있었다. 우리는 다 같이 밥을 먹었다. 토요일이니까 나는 학교에 가지 않지만, 아빠는 출근을 해야 했다. 엄마와 함께 현관에 아빠를 배웅하러 나가는 데,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빠, 아빠는 맞춤 신발을 만들고 팔죠, 그렇지요?”

“그렇지.”

“아빠가 재키를 위해 특별한 신발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분명 그가 좋아할 거예요! 못된 선수들이 그를 뺨쪽한 신발로 찌를 때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징박힌 신발 말이에요.” 아빠가 전에 나에게 선수들은 종종 앞코가 뺨쪽한 징박힌 신발을 신고 2루로 슬라이딩을 한다고 말했었다. 그것은 위험해서 2루수 선수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재키가 부상당하는걸 보고 싶지 않았다!

“스티브, 그것 참 멋진 생각이구나.”

손을 흔들면서 아빠가 말했다.

엄마와 나는 앞마당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서 가장 환하게 핀 벚꽃을 꺾었다. 로빈슨네 집에 들르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아치* 만화책을 읽었다. 엄마와 그녀의 친구들은 아치, 베티, 그리고 베로니카 사이의 사랑의 삼각 관계를 좋아했다. 나는 저그헤드(바보)나 할 만한 터무니없는 내용의 것들을 좋아했다.

우리가 부엌을 정리하는 동안 엄마는 계속해서 로빈슨 부인이야기를 했다. 그녀가 유명한 여인을 만난다는 것에 긴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있잖니, 스티브, 나는 내가 로빈슨씨에게 감탄하는 것만큼 로빈슨 부인에게도

감탄한다. 그녀는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워.”

엄마가 로빈슨 부인에게 그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나는 이제껏 엄마가 다저스 팀의 다른 선수들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와 재키는 대학에서 만났대.” 엄마가 계속 이야기 했다. “작년에 *브루클린 이글* 신문에서 그들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만난거지. 그렇지 않니?”

“재키는 일 년에 네 종목씩이나 UCLA대학 대표선수로 뛰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다저스에 합류하기 전에도 그는 유명한 운동선수였어요. 그의 자서전에서 읽었어요.”

“그리고 로빈슨 부인은 나처럼 간호사란다.”

“엄마, 벌써 열 시가 넘었어요.” 나는 보챘다.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가도 되죠?”

로빈슨 부인이 문을 열고 나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을 때, 나는 냇이 나가버렸다. *예쁘시군요.* 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친절해. 꼬마 아이 하나가 그녀의 다리에 매달려 있었다.

“저는 사라 새틀로우예요. 애는 제 아들 스티븐이고요. 우리는 두 집 건너에 살아요. 당신들이 우리 이웃이 된 걸 환영해요.” 엄마가 말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로빈슨 부인이 대답했다. “저는 레이첼이에요. 그리고 애는 제 아들이죠. 재키는 지금은 좀 낮을 가리지만, 좀 있으면 같이 놀고 싶어 할 거란다. 너는 몇 살이니, 스티븐?”

“6월이면 9살이 되요.” 나는 말하고 나서 거실을 보려고 로빈슨 부인 너머로 기웃거렸다. 아빠 재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재키는 이제 2년 6개월 정도 되었단다. 로빈슨 부인이 내게 말했다.

“스티브와 제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 나무에서 이걸 좀 꺾어 왔어요.”

엄마가 로빈슨 부인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너무 예쁘네요. 고마워요, 사라 그리고 스티브.” 레이첼이 말했다.

“재키가-”

“스티븐!” 엄마가 나를 야단쳤다.

“그러니까 제 말은, 로빈슨씨가 집에 있나요?” 내가 물었다.

로빈슨 부인이 웃었다. “아니, 스티브. 하지만 네가 왔었다고 그에게 전해줄게. 다저스 팀의 팬이니?”

“물론이죠!”

“잘됐구나! 이번 여름에 꼬마 재키랑 나랑 같이 경기 보러 갈래?”

“농담하는 거 아니죠? 가고말고요!” 아빠와 함께 다저스의 시즌 첫 홈경기에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로빈슨 부인과 함께 경기를 보러 갈수 있다.

너무 좋잖아, 나는 생각했다.

“네 부모님이 허락만 해준다면 나는 진심이란다.” 로빈슨 부인이 대답했다.

“제 아들의 무례를 이해해 주세요, 레이첼. 스티브와 제 남편 아키, 둘 다 다저스 팀과 당신 남편에 대한 애정이 대단해요. 그이는 당신네 가족을 만날 생각에 흥분해있죠, 그리고 당신네 가족을 이웃으로 맞이하게 되어서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둘러댔다.

“전 이해해요.” 로빈슨 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나를 향해 또 한 번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재키와 나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사라. 사과하지 않으셔도 되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싶은데, 저희가 아직 짐정리 중이어서요.”

“물론이죠. 충분히 이해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엄마가 팔꿈치로 나를 톡 치며 말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나도 따라 말했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꽃도 고마워요.” 로빈슨 부인이 말했다. “곧 만나요.”

나는 너무나도 실망해서 괜찮은 척 하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로빈슨네 앞마당을 나왔다. 내가 머릿속엔 온통 ‘내가 재키 로빈슨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다저스의 시즌 첫 경기가 다가오는 이주 내내 나는 이제 곧 시작할 거야라고 생각하며 일어났다. 내가 재키 로빈슨이 집을 나서는 걸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에 띄는 것뿐이었다. 좋은 계획이 하나 떠올랐다.

월요일 아침, 나는 여섯 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려고 옷을 입고 일곱 시에 아빠와 함께 아침을 먹었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학교 가기 전에 재키를 볼 수 있는 시

간이 한 시간이 있었다. 우리 집 현관입구에서 꼼짝 않고 스포츠 신문을 읽으면서도 내 눈은 계속해서 두 집 건너에 있는 빨간 벽돌집을 주시했다.

학교가 끝나고 나는 스투프볼(야구의 한 변종으로 공격 쪽이 계단이나 벽에 던지는 공을 수비하는 경기)를 하고 밖에서 숙제를 했다. 내가 밖에 있는 동안 재키가 집에 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렸다. 행운은 없었다.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하고 며칠이 지나갔다.

“그가 우리 옆집에 사는데도 한 번도 그와 마주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니!” 어느 오후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나는 세나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스티븐 제이 새틀로우, 그만 좀 해!” 세나가 내게 소리쳤다.

충격이었다. 그녀가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 그는 나의 영웅이다. 그는 내 이웃이다. 재키 로빈슨을 두 눈으로 보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그와 직접 말을 하는 건 보너스 일 것이다. 내 평생 그와 악수만 할 수 있다면. 야구 모자를 흔들며, 재키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을 수만 있다면. “오, 세나.” 나는 넌더리가 나서 대답했다. “네가 양키즈 팬이 아니라면, 너도 이해할 텐데.”

첫 경기 날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집착하게 되었다. 로빈슨네 가족이 이웃에 살게 된 지 2주가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재키를 보지 못했다.

어느덧, 시즌 첫 경기가 열릴 4월 20일이 되었다! 다저스 팀은 시즌 첫 경기를 지방으로 가서 할 예정이었다. 아빠와 나는 1948년 시즌 첫 경기 중계를 들으면서 현관에 앉아 있었다. 다저스는 지역의 맞수인 뉴욕 자이언트와 플로 그라운즈에서 경기를 하는 중이었다. 2루는 재키가 본루는 새로운 포수인 로이 캄파넬라가 지키는 가운데 다저스는 또 다시 역사를 썼다. 그들은 이제 선발선수 중에 두 명의 흑인선수가 포함된 최초의 메이저리그 팀이다. 그것은 자이언트 구장에서 열린 연속 세 경기 시합이었다. 결국, 다저스가 세 경기 중 두 경기를 이겼다.

4월 23일 금요일 우리가 사랑하는 브루클린 다저스 팀이 에베츠 구장으로 돌아왔다! 첫 홈경기는 오후 두시에 필라델피아 필리스 팀과의 대결이었다. 나는 아빠에게 학교 가기 싫다고 애원했다. 나는 라디오 경기 중계를 듣기 위해서 꼭 집에 있어야 했다.

“제발, 제발, 제발요, 아빠.” 나는 애원했다.

그는 스크램블 에그와 밀 빵 토스트가 담긴 접시에서 시선을 떼고 올려다보더니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깜짝 놀랄만한 선물이 있단다, 아들이야.”

나는 자세를 바로 잡고 앉았다. “뭔데요, 아빠?” 내가 물었다.

내 궁금증은 점점 쌓여가고 있는데, 아빠는 소금통을 가지고 장난치더니, 그러고 나서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표 두 장을 꺼냈다. 그것들을 나에게 건네주었고 나는 자리에서 폴짝 뛰어올랐다.

“믿을 수 없어요! 난 아빠가 잊은 줄 알았어요. 아니면 가고 싶지 않거나. 아빠, 전 브루클린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예요.” 나는 몸을 기울여서 아빠의 볼에 뽀뽀했다.

“네가 그동안 학교와 집에서 태도를 좋게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잖니.” 아빠가 말했다. “말리켄 선생님도 좋다고 하셨어. 그리고 나도 이 특별한 날을 너와 함께 하고 싶었던단다.”

“최고로 신나요!” 아빠에게 말했다.

“아마 이제 저는 드디어 재키 로빈슨을 만나겠죠, 그럴 것 같죠, 아빠?”

“나도 모르지, 아들이야. 볼 수도 있겠지.”

“로빈슨 아줌마가 그러는데 재키가 아이들을 좋아한대요.” 그에게 말했다.

“아마도 그가 타격 연습이 끝나면 저에게 올지도 몰라요. 그럼 전 공에 사인해 달라고 할거예요.” 내가 말했다.

“만약 네가 재키 로빈슨을 만난다면, 아마 그가 너에게 사인을 해주겠지.”

“우리 일찍 갈수 있어요?”

“그럴 셈이었던단다.” 아빠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와 나는 5센트를 내고 에베츠 구장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 기차 타고 가는 도중에 나는 재키에게 건넨 첫 인사를 연습했다. 나는 새 야구공을 손 안에서 굴렸다. 재키 로빈슨을 동네에서 만날 계획을 세웠었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만약 그를 본다면, 나는 그에게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좋을 것이다.

“아빠, 표가 비싸지 않았나요?” 내가 물었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구나.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본적이 없으니 말이야.”

“행복해요, 아빠. 오늘을 영원히 기억할거예요.” 몸을 기울여 아빠의 어깨를 껴

안으면서 내가 말했다.

“너무 너무 고마워요!” 나는 눈길을 돌렸다. 내 웃는 얼굴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뒤섞였고, 나는 아빠가 보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다시 재키 로빈슨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지 연습하기 시작했다. “저는 당신네 집에서 두 집 건너에 살아요.” 나는 나직이 반복했다. 그렇다, 그 점이 나와 다른 아이들과의 차이점일 것이다. 아니면 그냥 “전 당신의 이웃 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 나는 결심했다. 그게 더 간결했다.

기차가 우리가 내릴 역에 도착했고, 우리는 에베츠 구장이 있는 쪽으로 나갔다. “여기서 기다리자, 아들아.” 아빠가 말했다. 우리는 경기장의 옆문에서 멈췄다.

“왜 여기서 멈춰요?” 나는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밑에 내려가 사인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물었다.

“누굴 좀 만나기로 했어.” 아빠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빠...” 내가 투덜거렸다. “타격연습을 놓칠지도 몰라요.” 야구공을 공중으로 던지고 받았다. 기다리는 동안 공을 점점 더 높이 던지다가 지루해졌다. “아빠...” 나는 애원했다.

“기다리렴, 아들아.”

“몇 시예요?”

아빠가 그의 손목시계를 쳐다봤다. “12시구나.” 그가 알려주었다. “경기는 2시에 시작한다.”

“타격연습은 언제 끝나요?”

“우리 팀이 준비운동을 맨 마지막에 한다. 12시 30분쯤일걸.” 아빠가 대답했다. “시간이 남았다.”

나는 경기장 벽을 세계 차고 나서 에베츠 구장이 낡고 부서지기 쉽다는 걸 생각해 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한다. 이 경기장은 1913년에 동네 한 가운데에 지어졌다. 관중석들은 경기장과 매우 가까워서, 선수들이 서로 이야기 하는 것 들을 수 있고 그들의 표정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새로운 경기장을 필요로 했다. 나는 그들이 에베츠 구장을 완전히 부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경기장을 만들지 궁금했다.

“에이, 아빠,” 우리가 경기장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내가 말했다

다. “여기서 사인을 하나도 받지 못 할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다른 애들처럼 볼펜 (야구장에서 투수가 시합 전에 투구 연습을 하는 곳) 근처에 있어야 한단 말 이예요.”

“잠깐만,”

“계속 그 말만 하잖아요. 하지만 우린 지금 시간을 버리고 있다고요. 들어가요, 제발.” 나는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좌절한 채 나는 아빠에게서 돌아섰다. 내가 다시 돌아섰을 때 아빠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주위를 다시 둘러보다가 두 남자가 우리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아빠!” 내가 말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뭐가?”

“저건 재키와 로이 캄파넬라인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그러네.” 아빠가 대답했다.

“그들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걸까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 아빠가 이런 일을 꾸민 걸까? 가슴 속에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그토록 기다려 왔던 순간이 앞에 다가왔지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아빠가 내 손을 잡았다. “가자 스티브. 네가 원했던 거잖아.”

그 유명한 야구선수들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좁히며 우리는 다가갔다. 나의 영웅을 올려다보자, 내 머리는 텅 비어버렸다. 나는 얼어서 서있었다.

“스티브,” 재키가 그의 손을 나에게 내밀며 말했다.

내 눈이 거의 밖으로 튀어나올 뻔 했다. 그가 내 이름을 안단 말이야? 나는 손을 뺀 재키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고 어떤 말도 입에서 나오지가 않았다. 나는 그저 인기스타를 만난 아이처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벚꽃을 갖다 줘서 고맙구나. 우리 집 식탁위에 있는데 너무 예쁘던데.” 재키는 마치 우리가 예전부터 친구였던 것처럼 편하게 말했다. “집사람이 네가 우리의 광팬이라고 하던걸.” 나는 머리를 빠르게 끄덕거렸지만, 여전히 말은 나오지 않았다. 몇 주 동안 나는 이 장면을 상상하고 또 상상했고, 바로 지금 그 재키가 내 앞에 서있는데, 나는 멍칫거리고 있다. 내 머릿속에서는 질문들이 서로 부딪치다가 사라졌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로이 캄팔라를 소개해줄게.” 재키가 나에게 말했다.

다시, 나는 공을 떨어뜨렸고, 말하는 대신에 로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자연스럽게 웃음을 지으면서 그들이 이해해주길 바라며 나는 엄청난 두 남자를 올려다봤다.

“평소에는 수다스러운 제 아들이 당신 때문에 말문이 막힌 것 같네요, 로빈슨 씨.” 아빠가 공백을 채우려 끼어들었다. “저는 아키예요. 스티브의 아빠입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제 아들이 당신을 보려고 동네를 다 뒤흠고 다녔거든요. 방금 전까지 첫인사를 어떻게 건넬지 연습하고 있었답니다. 그동안 연습한 게 머릿속에서 없어져 버렸나 봐요.

아빠가 재키와 로이와 함께 야구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오로지 듣기만 했다. 아빠는 너무 편안하게 말하는데, 나는 이름조차 입 밖으로 내 뱉지 못했다! 재키가 아빠에게서 몸을 돌려 내 쪽을 바로 쳐다봤다.

“앞으로 우리는 홈경기가 몇 번 더 있단다. 나를 보게 될 거야.” 그가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나는 내 입이 그렇게라도 하게 해야 했다. 재키에게 야구공을 건네고 그와 로이가 사인하는 동안 지켜봤다. “고맙습니다.” 사인한 공을 다시 내손에 쥐면서 속삭이듯 말했다.

아빠는 그 선수들과 악수를 했고 그들에게 시즌이 성공적이길 바란다고 했다.

“스티브, 로이와 나는 타격연습을 하러 들어가 봐야 한단다. 가끔 우리 집에 놀러올래? 내 아들이 형이랑 노는 걸 엄청 좋아할 거야.”

“알겠어요.” 나는 속삭였다.

“고마워요.” 아빠가 대답했다.

나는 아빠를 쳐다봤다. 그는 나를 위해 이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한 걸까?

재키가 떠나려고 할 때, 내가 다급히 큰소리로 말했다. “제가 어떻게 불러야 하죠?”

재키가 나를 향해 북극도 녹일 것 같은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재키아저씨라고 부르렴.”

제 5 장

아빠와 나는 관중들 사이를 교묘히 빠져나와 경기장 아래로 내려갔다. 우리는 타격 연습을 하고 있는 각자의 좋아하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 수백 명의 팬들 사이에 서 있었다. 나는 재키가 스윙연습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관중들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가 3번을 연속으로 홈런을 치자 관중들은 엄청난 함성을 터뜨렸다!

“봤어요, 아빠?” 나는 관중들의 함성너머로 소리쳤다.

“물론 봤지, 아들아. 다음은 로이 차례란다.” 그가 대답했다.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우리의 새로운 포수를 환영했다. “로이! 로이! 로이!” 그는 외야 벽을 때리도록 직선으로 공을 던져 우리에게 보답했다.

“더 높이 때려!” 다음 스윙은 홈런이길 바라며 소리 질렀다.

타격연습이 끝나자, 선수들이 공에 사인을 해주려고 관중들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벽 위로 몸을 기울여서 선수들을 향해 팔을 내밀고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을 큰 소리로 불렀다. 피위, 듀크 스나이더, 그리고 랄프 브란카까지 재키와 로이가 이미 사인해준 공에 사인을 해 주었다. 아빠와 내가 자리에 앉았을 때, 내 심장은 정신없이 뛰고 있었다. 경기는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이마 그날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되었다!

아빠에게 사인볼을 건넸다. “저 대신 좀 맡아주세요. 그 공을 영원히 간직할거예요!”

아빠는 내 소중한 야구공을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 내가 잘 갖고 있을게.”

25,000명이 넘는 팬들이 시즌 첫 홈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 있었다. 국가를 부르기 위해서 모두가 일어서 있는데 내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많은 다저스 팬들은 일어서서 필리스 팀의 선발선수들에게 야유를 보냈다. 브루클린 다저스 선수들이 소개 될 때에는 경기장이 환호성으로 뒤흔들릴 지경이었다.

몇 분 후 관중들은 보호 패드를 입은 로이 캠페넬라가 선수대기석에서 나와서 본루 뒤에 쪼그리고 앉자 다시 한 번 관중들은 함성을 질렀다. 캠페넬라가 다저스의 첫 투수인 조 해튼이 연습으로 던진 공을 몇 개 잡았고, 마침내 아나운서가 소

리 질렸다. “경기 시작합니다!”

관중들의 에너지가 온 관중석에서 느껴졌다. 우리의 다저스 팀이 돌아왔다! 나는 놀라워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너무 들떠서 자리에 앉아 있기 어려울 정도였다. 한 관객석에서 함성이 나오기라도 하면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벌떡 일어섰다.

다저스 심-포니라는 이름의 팬들의 무리가 건너편에서 악기를 들고 음정이 틀린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고, 팬들은 주위로 모여들어 그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연주가 교향곡처럼 들리지 않는다고 신경 쓰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누심이 미심쩍은 판결을 내리면, 심-포니는 “세 마리 장님 쥐”를 연주했는데, 그것은 상대 팀에게 조롱을 보내는 것이었다.

“라디오에서 중계를 듣는 것 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요.” 기대감에 들떠서 내가 말했다. *앞으로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 내가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필라델피아의 3루 주자인 리치 애쉬번 선수가 본루로 도루를 했다. 필리스 팀은 시작부터 강하게 치고 나왔다.

“네 말이 맞아. 에베츠 구장에서 직관에 비할 바가 없지.”

재키 로빈슨이 다저스의 첫 타자였다.

“홈런을 날려, 재키!” 나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

재키가 유격수 쪽으로 일루타를 쳤다. 이어서 아키 본이 뜬공을 쳐서 아웃 당했고, 프레스턴 워드는 삼진아웃을 당했다.

재키가 도루를 시도하다 잡혔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응원했다.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1회가 끝났을 뿐이다.

“브랜치 리키가 외야 쪽 벽에 보호대를 설치했다는 걸 알고 있었니?” 다저스 선수들이 수비를 하러 나갈 때 아빠가 물었다.

“음,” 나는 외야 쪽 벽을 바라보면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 보이네요.”

“리키씨는 또 다시 다른 선수가 피터 라이서처럼 부상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단다.” 아빠가 말했다.

경기가 진행되자 나는 재키와 피 위 리즈에게 집중했다. 재키는 이번 시즌부터 2루를 맡았다. 피 위가 유격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합쳐야 했다. 환상적인 더블플레이가 펼쳐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두 선수를 나는 지켜봤다.

재키는 타석에 세 번 섰고 두 개의 공을 쳤다. 다저스 선수들 중 프레스턴 워드와 칼 푸릴로 두 사람만 유일하게 점수를 냈다. 필리스 팀은 브루클린 팀을 10대 2로 대패시켰다. 하지만, 다저스의 팬들은 고개를 높이 든 채 브루클린의 거리위로 쏟아져 나왔다. 우리는 “다음번엔 우리가 이겨주지!”라며 함성을 질렀다.

“경기가 어땠니?” 기차가 역으로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아빠가 물었다.

나는 아빠를 향해 웃어보였다. “지긴 했지만,” 나는 입을 열었다. “오늘이 내 인생에 가장 신나는 날 이에요. 하지만...아빠,” 내가 말을 이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

“우리가 재키 로빈슨을 만나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빠가 웃었다. “엄마와 로빈슨 부인이 한 일이란다. 그 둘이 계획을 짰지. 너는 행운아야, 스티브.”

“전 정말 운이 좋은가 봐요, 아빠.” 내가 대답했다.

다음날은 토요일이어서 나는 로빈슨 부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로빈슨네 집을 찾아갔다.

“안녕, 스티브.” 그녀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들어오렴. 꼬마 재키가 너를 보면 반가워할 거야.”

거실로 들어가자 거기에는 꼬마 재키가 카펫 위에서 나무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로빈슨 아저씨와 제가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희 엄마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 스티브. 엄마가 그 만남을 위해서 나보다 더 애쓰셨단다.”

“어떻게요?”

“그 주초에 우연히 너희 엄마를 만났는데, 네가 재키를 만나지 못해서 너무 실망했다고 하더구나.” 로빈슨 부인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너도 그이를 재키라고 부르지, 그렇지?”

“로빈슨씨라고 부르는 대신에 재키아저씨라고 불러도 괜찮다고 허락해주셨어요.” 내가 설명했다.

“괜찮고말고. 스티브. 나도 레이첼이라고 불러도 좋단다. 어쨌든, 네 엄마에게서 재키를 만나지 못해서 네가 속상해 한다고 들었지. 우리는 뭔가 일을 꾸며야겠다고

생각했단다. 쉬운 일이지. 재키도 너를 만나서 반가워했어.” 레이첼이 말했다.

“그런데 저는 그에게 한마디도 못했어요.” 내가 변명하듯이 말했다.

“그게 네 매력이지, 스티브. 네가 그이를 곧 편하게 대할 거라는 걸 그이도 알고 있단다. 집에서는 재키가 남편이자 아빠란다. 너도 그이와 곧 친해질 거야.”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요.”

“꼬마 재키랑 같이 놀고 싶니?”

“그럼요.” 내가 대답했다.

온 동네사람들이 집 밖에서 지내는 여름철이 왔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밖에서 혼자 스투프볼을 하고 있는데 로빈슨 가족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났다.

“안녕, 스티브.” 재키가 나를 불렀다.

나는 손을 흔들며 보이곤 다시 스펀딩 공을 우리 집 계단 모서리에 던졌다. 나는 재키가 가까이 다가와서 보는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건 무슨 경기이니?” 그가 내게 물었다.

“스투프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공을 좀 봐도 될까?”

나는 재키에게 고무공을 건넸다. 그는 몇 번 그 공을 짝 쥐어 보더니 다시 나에게 건네주었다.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제안했다.

“물론이지.” 재키가 대답했다.

“공을 계단 모서리에 맞힌 다음 바닥에 튕기기 전에 다시 공을 잡아야 해요. 이렇게요.” 내가 말한 다음 완벽한 시범을 보여주었다.

재키와 나는 한 시간 동안 승부를 겨뤘다. 그는 정말 타고난 운동선수였다. 그리고 그는 정말 경쟁심이 강했다! 다행히 우리는 점수를 세지는 않았다. 드디어 그와 친해졌다.

시즌이 지나갈수록, 우리 두 가족 사이의 우정도 점점 깊어졌다. 나는 가끔 로빈슨네 집에 혼자 가곤 했다. 또 가끔은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가기도 했다. 또 몇 번은 로빈슨 가족이 우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다.

내가 처음에 재키에게 느꼈던 수줍음은 없어졌다. 어느 저녁, 스테이크와 구운

감자를 먹고 있었는데, 재키가 팬이 보낸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솔직히 말하면, 전 팬들이 보낸 편지들을 주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팬들 한명 한명에게 빠짐없이 답장할 시간이 없거든요.”

“재키,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가 제안했다.

“사라, 정말인가요?” 레이첼이 끼어들었다.

“물론이죠, 도움이 되고 싶어요.” 엄마가 말했다.

“아키, 혹시 반대하나요?” 재키가 물었다.

“괜찮죠.” 아빠가 말했다.

나는 뒤로 등을 기대앉아서 어른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으며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나도 재키를 위해서 팬들이 보낸 편지를 읽게 될지도 모른다. 이게 웬일이야!

다저스 팀이 어려운 경기를 치루고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에베츠 구장에서 돌아오는 재키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집 앞 계단에서 기다리곤 했다. 그와 나눌 특정한 이야기 거리를 만들려고 팀의 모든 선수들의 타율과 도루성적을 피고 있었다.

어느 오후, 재키가 나타났을 때 나는 꼬마 재키와 함께 로빈슨네 집 근처에 있었다. 몸을 굽혀 아들을 팔에 안아 올리는 그를 지켜봤다. 꼬마 재키는 좋아서 깽깽 소리를 냈다. 그 둘에게서 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재키가 아들을 내려놓을 때, 나는 그가 다음에 나를 들어 올려 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나는 재키를 올려다 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안녕, 스티브. 오늘 재키랑 뭐하고 놀았니?”

나는 반쯤 만들어 진 집을 내려다 보고나서 다시 재키를 올려다봤다. “시골 집이에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동물들이 살 수 있게 헛간도 만들 거예요.”

재키가 웃었다. “재미있겠구나, 그건 내 꿈인데. 음, 동물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나는 재키가 개를 키울 수 있을 만큼 넓은 땅이 있는 집을 만들 거야.”

레이첼이 부엌에서 걸어 나왔고 재키가 그녀를 안아주며 물었다. “뭘 만들었기에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는 거야?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레이첼이 웃었다. “고기랑 감자를 좀 구웠어.”

“스티브, 저녁 먹고 갈래?” 재키가 물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요.” 레이첼을 따라 부엌으로 들어가며 내가 말했다.

“엄마한테 전화해보렴, 스티브. 내가 잘 말해줄게.” 레이첼이 제안했다.

우리 엄마가 허락하자마자, 재키와 나는 블록을 정리하고 저녁을 먹기 전까지 슬래잡기를 하느라 집 안 여기저기를 서로 쫓아다녔다.

“레이첼이 곧 네 생일이라고 하던데.” 식전 기도를 마치고 음식을 나눠 주면서 재키가 나에게 말했다.

“6월 19일이면 아홉 살이 되요.”내가 대답했다.

“아홉 살이라” 재키가 되뇌었다. “3학년이겠구나. 네 성적은 어떠니?”

“꽤 좋아요.” 내가 대답했다. “전 태도 점수도 만족할 만큼 받았다고요! 아저씨도 제 나이만할 때 말썽부렸나요?”

재키가 큰소리로 웃었다. “내가 네 나이였을 땐, 나는 불량학생들 패거리와 어울려 다녔단다. 우리는 스스로를 페퍼 스트리트 패거리라고 불렀지. 우리가 정말 나쁜 짓을 한건 아니었어...골프공을 몇 개 훔쳐서 다시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 팔거나...가판대에서 과일을 슬쩍한다거나 했지. 우린 운이 좋았어. 젊은 목사 한 분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셨어, 그리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셨단다. 나는 그 패거리에서 나왔지. 다운즈 목사님은 내가 군 생활을 하는 내내 지켜보셨단다. 나중에 나와 레이첼이 결혼할 때 그분이 주례를 서주셨지. 나는 그 분을 정말 좋아했고,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단다. 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단다, 스티브. 다운즈 목사님은 최근에 돌아가셨어. 충격이었단다. 그는 아직 젊었거든. 마치 친한 친구를 잃은 것처럼 그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팠지...그게 내가 시즌 첫 경기에서 경기에 최선을 다해 임하지 못한 이유란다.”

“슬픈 이야기네요.” 내가 재키에게 말했다. “저한테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도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넌 운이 좋은 아이야, 스티브” 레이첼이 덧붙였다. “다운즈 목사님은 재키 인생에서 기둥과 같은 분이셨거든, 재키는 항상 엄청난 자제력을 갖고 있었단다. 네가 어른이 된다고 해도 언젠가 의지할 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자제력이 뭐예요?” 내가 물었다.

“그건 네 스스로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지.” 레이첼이 말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충동과 감정들을 억누르는 것과 같은 거야.”

“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주 화가 난 순간에도 누군가를 때리지 않거나 그들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는 가끔 자전거를 타고 아주 빠르게 틈든가를 왔다 갔다 해요. 보통 그럼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맞아, 스티브. 가끔 너는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일깨워 줘야 한단다. 나는 숨을 깊게 쉰단다. 화가 가라앉도록. 화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게 최선이야.” 재키가 제안했다.

“재키, 아저씨도 운이 좋은 거예요. 화가 났을 때도 도루를 하거나 홈런을 칠 수 있잖아요.” 내가 덧붙여 말했다.

“난 한동안 홈런을 치지 못했단다, 스티브.” 재키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곧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곧 그렇게 되겠지. 긴장을 좀 풀어야지. 더 집중하고. 그럼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재키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런 이야길 들으니 좋은데요.” 내가 말했다.

“야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단다.” 재키가 야구 글러브 하나를 나에게 건네면서 말했다. “이건 내가 쓰기보다는 전시용으로 두는 게 낫겠지만, 웬지 네가 이것 갖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나는 내 짧은 손가락들을 가죽 글러브 안으로 밀어 넣었다. 나한테 너무 컸다. 의아해하는 눈으로 재키를 올려다봤다.

“그건 내 연습용 글러브란다.” 재키가 설명해주었다.

“이런, 고맙습니다. 이 글러브가 어디서 났는지 내가 친구들한테 말하면 개들은 내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나는 활짝 웃으며 글러브 안에 손을 바짝 밀어 넣었다.

“잘 간직하렴, 스티브.” 재키가 말했다.

“이게 정말 아저씨가 큰 경기들에서 썼던 건가요?”

“그렇고말고. 춘계 훈련을 하는 동안이랑 시합 전에 몸을 풀 때 사용했던 거란다.” 재키가 나에게 말했다.

“이제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최고예요.” 나는 토박토박 말했다.

재키가 미소 지었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구나.”

대화 주제가 바뀌었다. 재키와 레이첼이 트루먼 대통령의 군대 통합에 대해서 이

야기 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식사를 했다.

“내가 보기엔 이번 여름쯤에 이뤄질 것 같아.” 재키가 레이첼에게 말했다.

“의회와 남부지역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면,” 레이첼이 대답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군대 통합을 위해서 행정 명령도 고려하고 있대.” 재키가 설명했다.

“그럼 군대 내에서는 차별이 없어지겠네. 야구에서 당신이 성공을 거둔 일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이 군대 내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뭐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거야.” 레이첼이 대답했다.

“차...차...그 단어 저도 알아요,” 내가 *차별*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말하려다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러시아에 살 때 그들이 유대인이어서 그런 일을 겪었대요. 그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러시아를 떠나서 미국으로 왔어요.”

“차별은 유대인이나 흑인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거란다.” 재키가 말했다.

“군대에 있었다고 했었죠?” 내가 물었다.

“그랬지.” 재키가 대답했다. “소위였었지. 나는 텍사스 주의 포드 후드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흑인과 백인은 학교, 공원, 버스, 그리고 병원에서 따로 지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단다. 군부대에서 흑인 군인들은 백인 군인들과 막사를 따로 써야 했지. 장교들은 심지어 함께 어울리지도 못했단다. 우린 소속이 달랐단다.”

“하루는 내가 군부대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지. 병원에 가야했거든. 흑인 차별 정책 때문에 나는 버스 뒤쪽으로 가서 앉아야 했지. 그런데 버스 중간에 내가 부대에서 알고 지낸 어떤 여자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거야. 버스기사와 나는 언쟁을 했고, 나는 체포당했지.” 재키가 설명했다.

“정말요?” 단지 버스에서 다른 자리에 앉았던 이유만으로 사람이 체포당할 수 있다는 걸 믿기 어려웠다.

“재키, 스티브가 혼란스러워 하잖아. 얘는 차별과 그 법들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워.” 레이첼이 끼어들었다.

“어떤 우리 이웃들은 흑인 가족이 이곳에 사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반대하며 이야기했다. “다저스가 메이저리그에서 흑인 선수를 기용한 첫 번째 팀이라는 것도 알아요. 아빠랑 같이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

요.”

레이텔이 미소 지었다. “미안하구나, 스티브. 넌 정말 제대로 알고 있구나.”

“감옥에 갔었나요?” 나는 재키에게 물었다.

“아니. 하지만 그 사건은 법정까지 가게 되었단다. 나는 내 권리를 알고 있었어. 좀 복잡하단다, 스티브. 하지만 그 버스가 우리 군 부대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흑인들은 버스 뒷좌석에 타야 한다고 요구하는 그 법은 적용되지 않았지. 내 죄는 없었단다. 나는 그 재판에서 이기고 나서 명예롭게 제대를 했지.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과 의회가 모든 군대에서 차별을 철폐할 것이라는 이 소식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란다.” 재키가 설명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스티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모든 메이저리그 야구팀에서 흑인 선수들이 뛰게 된다면, 군대처럼 되는 거겠네요. 맞죠?”

“곧 그렇게 될 거란다, 스티브.”

제 6 장

바로 그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주먹다짐을 했다.

따스한 여름 오후였다. 그날은 다저스 팀이 하루 쉬는 날이었지만 곧 일주일동안 홈경기를 할 예정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세나와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 운동장으로 갔다. 혹시나 경기를 하게 될까봐 나는 새 글러브를 챙겨갔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소프트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운동장을 차지하고 있었다.

“야, 우리도 같이 해도 되?” 세나가 소리쳤고 우리는 뛰어가서 그 애들과 함께 했다.

세나와 나의 키가 대부분의 아이들의 키에 비해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열심히 뛰었다. 세나가 나보다 공을 더 잘 치긴 하지만 나도 수비는 꽤 잘했다.

“너희가 우야수를 맡으면 되겠네.” 남자아이들 중 하나가 우리에게 말했다.

나는 외야수가 싫었다. 그래서 말다툼이 시작 되었다. 하지만 재키와 자제력에 대해서 말한 것 때문에 꼭 참았다. 외야수라고 하면 나는 사하라 사막에 한가운데에 염소 무리들과 남겨진 어린 아프리카 소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모든 경기가 이루어지는 내야수를 맡고 싶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자전거 핸들에 걸린 글러브를 빼서 우야수 쪽 내 자리로 뛰어갔다.

몇 회가 지나서야 겨우 2루 너머로 공이 넘어왔다.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항의의 의미로 다음번에 타자가 공을 멀리 길게 쳤을 때 잔디밭에 앉아버릴까 생각했다. 나는 힘을 냈다. 공이 우야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바로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 내 실력을 보여줄 때였다. 이 4, 5학년들에게 나도 그들만큼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위치를 잘 잡고 공을 잡기 위해서 두 다리에 힘을 단단히 주고, 글러브를 낀 내 손을 올려다봤다. 글러브가 나한테는 너무 컸다. 센 공을 다루는 성인용이었다. *너무 늦었어*, 나는 생각했다. 재키에게나 맞았겠지. 나는 공중으로 손을 뻗었고 공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도와줄까, 스티브?” 세나가 소리쳤다.

“거의 다 잡았어!” 빠르게 떨어지는 공에서 눈도 떼지 않고 나는 소리쳤다. 내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쿵쾅거렸다. 소금기 머금은 땀 때문에 눈이 따가웠다. 타자

가 1루를 지나 2루로 향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 “멀리 못 갈 걸.” 확신하며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공이 내 손안에 거의 들어온 순간 별이 나를 쏘았다. 그 별은 내 종아리를 쏘았고 고통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나는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공도 땅으로 떨어졌다. 세나가 달려와서 공을 잡고는 투수에게 던졌고 그동안 나는 양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너무 늦어버렸다.

그 실수 때문에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다.

같은 팀의 몇몇 소년들이 나에게 달려왔다. 나는 그들이 내가 괜찮은지 보려고 오는 줄 알았다. “계집애 같긴!” 맨 먼저 달려온 소년이 소리쳤다. 나는 움찔했다.

또 다른 소년이 더 심한 욕을 내뱉었다.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빨던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별에 쏘인 아픔도 잊은 채, 나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는 씩씩거렸다. “별에 쏘였단 말야,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보여주겠어!”

소년들 중 한명이 나를 비웃었다. “별에 쏘였단 말이야...그래, 그렇겠지.” 그가 침을 뱉고는 내 소중한 글러브를 집어 들었다. “이 꼬질꼬질한 글러브나 갖고 가.” 그가 소리쳤다.

“재키 로빈슨이 나에게 준 글러브라고.” 내가 되받아쳤다.

세 명의 소년들이 큰소리로 웃었다. “거짓말! 재키 로빈슨은 너한테 아무것도 준 적이 없어.”

“재키는 돼지 같아.” 그 소년들 중 하나가 큰소리로 말했다.

“맞아! 그는 올해 도루를 하나도 성공 못 시켰어,” 또 다른 소년이 시비를 걸었다.

나는 너무나도 화가 났다. 그 애들이 나를 놀리는 건 괜찮았지만, 재키를 놀리는 건 괜찮지 않았다. “그는 최고의 야구 선수야.” 내가 그들에게 되받아 외쳤다.

세나가 내 팔을 붙잡았다. “그만 가자.” 나에게 속삭였다.

대꾸하는 대신에 나는 팔을 빼서 욕을 하던 소년들 중 한명의 배를 향해 세계 밀었다. 그 소년이 내 배를 세계 때렸다. 나는 다른 두 명의 소년들에게 달려들었다.

세나가 너무 소리 지르는 바람에 귀가 터지는 줄 알았다. 나는 머리를 휘저었다. “뛰어!” 세나가 소리쳤다.

이번엔 나는 세나의 충고를 들었다. 세나와 나는 최대한 빨리 뛰기 시작했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자전거가 있는 곳에 다다르자 뛰어오르고는 개들에게 쫓기는 것처럼 페달을 밟았다. 빠르게 몇 분을 달리고 나서 우리는 뒤돌아 봤다.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경기가 다시 시작 되었고, 그들은 우리를 잊어버렸다.

세나가 나를 노려봤다. “미쳤어?” 그녀가 소리 질렀다. “이기지도 못할 싸움은 두 번 다시 시작하지도 마! 개네들이 우리보다 열두 명은 더 많아, 그리고 우리보다 두 배는 더 크단 말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어,” 나는 말을 더듬었다. “개들은 재키를 욕하면 안 돼. 그는 살도 뺏고 다시 공을 치고 있다고. 재키가 개들한테 보여 줄 거야. 모두에게 증명할거라고,” 내가 되받아 소리쳤다. 나는 세나를 뒤로 한 채 집으로 뛰어갔다.

자전거를 현관 계단 아래 두고 계단을 올라가서 힘이 빠진 채 쭈그리고 있었다. 엄마가 문 뒤로 얼굴을 내밀었다. “어서 오렴. 공놀이 했니?”

“하긴 했죠.” 내가 툭툭거렸다.

“스티브, 내가 이야기 할 땐 나를 봐야지.”

“알았어요.” 나는 엄마와 얼굴을 마주 보도록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엄마가 나를 위 아래로 쳐다봤다. 엄마가 싸운 흔적을 못 봤으면 하고 바랐다. 더러워진 셔츠. 찢어진 주머니. 멍들고 우울한 얼굴.

“들어오렴, 스티브.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좀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말했다.

“조금만 있다가 해도 되나요?”

“10분 줄게.”

엄마가 문을 닫았고, 한숨을 크게 쉬며 나는 다시 주저앉았다. 내가 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식료품들을 들고 걸어오는 재키 로빈슨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는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도와드릴까요?”

“혼자 들 수 있단다, 스티브.” 나를 밀치고 지나서 그의 집 현관으로 향해 가면서 재키가 말했다. 그는 계단 맨 위에 올라서서는 나를 향해 뒤돌았다. “금방 나올게,” 그가 나에게 말했다. “현관 앞 계단에서 기다리렴.”

“물론이죠.” 대답하고는 나는 그날 하루 중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싸움에 대

해서 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재키네 집 앞 계단에 서 있었다. 그는 들어가서 십 분도 지나지 않아서 빈손으로 나왔다.

“같이 걸을까, 스티브.” 재키가 제안했다.

나는 몸을 돌려 우리 집 쪽을 쳐다봤다. 만약 내가 엄마의 허락도 없이 나가면 엄마는 엄청 화가 나서 펄쩍 뛸 것이다.

“걱정할 것 없단다.” 내 등을 쓰다듬으며 재키가 말했다. “레이첼이 네 엄마에게 전화했단다. 엄마가 허락해주셨어. 너의 학교에 가보고 싶은데.”

우리 학교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 애들과 다시 마주치면 안 되는데. 나는 갑자기 목이 메어왔다. 그가 알고 있는 걸까? “학교 문은 닫혀있어요.” 나는 우물거렸다.

“상관없단다.” 재키가 말했다. “가자.”

우리는 몇 분 동안 말도 없이 천천히 걷기만 했다.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니?” 재키가 물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했다. “있긴 해요.” 내가 대답했다.

“그 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니?”

“어..학교 운동장에 못 된 애들이 좀 있어요.” 내가 말했다.

“자세히 말해줄래.” 그가 압박해왔다.

걸음을 멈추고 재키를 쳐다봤다. “알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 그가 대답했다. “세나의 엄마가 네 엄마에게 전화했었단다. 그리고 엄마가 레이첼에게 말했지...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나는 너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단다.” 재키가 말했다.

“짜웠어요.” 나는 인정했다. 그리고 재키에게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았다.

“넌 전혀 여자애 같지 않아, 스티브.” 재키가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싸우는 것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단다, 특히 네가 수적으로 불리하거나 훨씬 어릴 경우에 말이야. 욕을 듣더라도 잘 넘기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지?”

“나는 아저씨처럼 강하지 않다고요.” 내가 발끈해서 말했다.

“그렇긴 하지, 스티브. 상황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너에게 욕하는 사람을 때리는 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란다. 벌에 쏘인 건 재수가 없었던 거고, 그

타이밍이 좋진 않았지만, 그게 네 잘못은 아니었잖니. 너에게 욕을 한 애들은 싸우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야. 할 수 있다면 다음번엔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쓰렴. 네가 공을 놓쳤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삼진 아웃을 당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글러브도,” 재키가 웃었다. “네 사이즈 보다 두 배는 큰 어른용 글러브를 너에게 준 건 내 실수였어. 미안하구나. 그건 네 방에 잘 간직해두라고 준 거였단다. 혹시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 네가 경기할 때 그걸 사용하는 건 아니야. 게다가 그건 야구용이지 소프트볼용은 아니잖니.”

어찌나 크게 웃었던지 내 몸의 긴장이 다 풀렸다. “그건 그래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 애들이 아저씨에 대한 나쁜 말 할 자격은 없어요.”

“나는 괜찮아, 스티브. 나를 변호해주지 않아도 된단다. 안 좋은 말은 많이 들어봤어. 게다가, 난 체중 조절을 하고 돌아왔단다. 다시 감을 잡는 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야. 거의 회복한 것 같아.” 재키가 말했다. “그럼 그 애들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

“학교 운동장에 간다고요?” 내가 물었다.

“그래.” 재키가 대답했다.

“와! 아저씨랑 저랑 같이요?”

틸든 가를 천천히 걷는 동안 우리는 사인을 요청하는 사람들 때문에 몇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멈춰 섰다. 재키는 모든 아이들에게 참을성 있고 정중하게 대했다. 내 키는 127 센티미터 인데, 한 발짝씩 내딛을 때마다 점점 키가 커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내 키가 3 미터쯤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우리가 경기장에 다가갔을 때, 소프트볼 시합은 끝나가고 있었다. 한 시간 전에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아이들은 지금 말없이 서있다. 충격이 가시자, 그들은 재키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지만 재키가 내 팔을 꼭 잡고 그의 옆으로 나를 잡아끌었다. 한 쌍처럼 딱 달라붙었다. 나는 그를 향해 환하게 웃어보였다. 우리는 친구다. 그걸 깨닫고 나자 안심이 되었다. *그렇지!* 나는 생각했다. *재키 로빈슨이 내 친구가 된 거야.*

재키는 특유의 따뜻한 함박웃음을 짓고 있었다. “내 친구 스티브와 시간을 보내

고 있었는데, 스티브가 잠깐 들어서 너희들을 만나야 한다고 하더구나.” 재키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정말요?” 그 남자애들 중 하나가 물었다.

“스티브를 쫓아내려던 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남자아이가 말했고, 몇몇 애들이 맞장구를 쳤다.

“재키 아저씨, 전혀 똥똥해 보이지 않아요.” 통통한 남자아이가 말했다.

“그만해.” 한 소년이 주의를 주었다.

“그럴 필요 없단다.” 재키가 그 소년에게 한 마디 했다. “그 애 말이 맞아. 시즌 상반기 동안 과제중이었단다. 그것 때문에 경기력이 떨어졌지. 나는 주루가 빠르고, 도루를 잘하기로 유명한 선수거든. 살이 찌면 대담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 힘들지. 이제 몸무게는 줄여야 만큼은 거의 다 줄였단다.”

“와, 스티브, 재키를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여자애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넌 항상 재키 로빈슨에 대해서 말했었지만, 네가 정말로 재키와 아는 사이일거라고 믿는 애들은 아무도 없었어.”

“맞아. 우린 네가 거짓말 하는 줄 알았어.” 다른 남자아이가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미소를 짓는 것뿐이었다.

“제 모자에 사인 해주실 수 있나요, 재키?” 누군가가 물어봤다.

“펜은 있니?”

눈 깜짝할 새,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재키한테 사인 받을 물건을 들고 줄을 섰다. 몇몇 애들은 나한테도 사인을 해달라고 했다. 어찌나 자랑스럽던지 믿기지가 않았다.

“소프트볼은 내가 많이 해본 적이 없단다.” 사인을 마친 뒤 재키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기꺼이 너희들에게 공과 상관없는 기술을 알려주지.”

재빠르게 날아오는 공들처럼 여기저기서 요청이 들어왔다. 그리고 재키는 그들에게 프로 선수들처럼 수비를 서게 했다.

“도루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여자애 하나가 말했다.

“제 이름은 샘이에요.” 재키와 악수하려고 앞으로 걸어 나오며 한 남자아이가 말했다. “저도 안짱다리예요. 당신만큼 빨리 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샘, 정말 빨리 달리고 싶다면 육상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운동하렴. 그럼 좋아질

거야.”

“주루 할 때 어떻게 베이스로 미끄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또 다른 아이가 물어봤다.

“몇 가지 동작을 보여줄게.” 재키가 약속했다. “하지만 도루할 때는 과감함과 인내심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걸 명심하렴. 투수를 유심히 살피다가 적절한 순간에 뛰어야 한단다. 위험도 분명히 따르단다. 터치아웃을 당한다고 해도, 잊어버리렴,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

“여기예요, 재키.”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파사데나 출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시즌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건가요?”

“확실하지 않아.” 재키가 대답했다. “캘리포니아는 변함없이 내 고향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스트 코스트에 정착할 때인 것 같구나. 이제 얘기 그만하고. 시작하자.”

재키는 수비 진영에서 우리와 같이 서있었고, 우리가 재키처럼 본루로 슬라이딩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주루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주었다. 너무 재미있었다. 재키가 그만하자고 했을 때, 모두가 아쉬움에 탄식을 터뜨렸다.

“내일 경기가 있단다.” 재키가 말했다.

“어느 팀이랑 해요?” 누군가가 물었다.

“신시내티 레즈” 재키가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레즈 팀을 이기길 바랄게요.” 우리가 털든가를 걸어 내려갈 때 아이들이 소리쳤다.

“스티브, 너희 반 애들 전체를 다저스 경기에 초대하면 어떨겠니?”

“당연히 그러고 싶죠! 내생일은 19일이라고요.”

재키에게 상기시켜주었다.

“잘됐다! 6월 24일에 너희 반 애들과 생일 파티를 하면 어떨까? 여름 방학하기 바로 전에 피트버그 팀과 더블헤더경기(보통 같은 두 팀이 하루 동안에 두 번 경기를 하는 것)가 있거든. 내가 첫 번째 경기 표를 구해줄게. 오후경기란다. 너희 반 애들이 몇 명이니?”

“아마 스물다섯 명일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너무 많은 거 아니 예요?“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오실 수 있도록 표를 넉넉히 줄게. 말리켄 선생님도 오실

것 같니?”

“말도 마세요. 그녀는 열혈 팬이라고요.”

“레이첼이랑 꼬마 재키랑 나와 함께 일찍 가도 된단다. 표를 맡겨둘게. 말리켄 선생님에게 연락해서 일정을 잡도록 다저스 팀 사무실에 말해둘게. 그리고 레이첼한테 네 엄마에게 전화해달라고 부탁해 볼게. 그리고, 스티브...레이첼과 함께 경기를 봐도 되고, 아니면 반 친구들과 같이 봐도 된단다. 알겠지?”

내 두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알겠어요.” 나는 따라 대답했다.
“최고예요!”

제 7 장

학교에서 난 영웅이었다. 내가 재키를 학교 운동장에 데리고 왔고, 그가 4, 5학년 학생들과 만났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다저스 팀의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말리켄 선생님 받은 후,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나를 안아 주었다. 말리켄 선생님은 심지어 나를 따로 불러 내 행동의 변화 때문에 그녀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그 해 초에 그녀를 덤볼로 밀어 빠지게 했던 소년이 아니었다. 재키 덕분이었다. 세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다른 반이었기 때문에 같이 갈수 없었다. “너 어떻게 우리 반 애들 표는 안 구해 줄 수 있니?” 그녀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입을 삐죽거렸다.

“야, 내가 너 잊지 않았어. 말리켄 선생님이 너와 너희 엄마도 함께 갈수 있도록 표 두 장을 남겨두셨거든.

“만세!” 세나가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다.

“경기가 시작하면, 난 로빈슨 부인과 같이 보거나 우리 반 애들이랑 같이 볼 수 있어.”

“내가 너라면 난 로빈슨 부인이랑 있을 거야.” 세나가 제안했다. “그녀 좌석이 더 좋겠지.”

6월 24일 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엄마와 나는 로빈슨네 집으로 걸어다가 꼬마 재키와 스투프볼을 하고 있는 재키를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 재키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엄마와 나는 동시에 말했다. 나는 재키와 엄마가 그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하는 동안 꼬마 재키와 이어서 스투프볼을 했다.

“기대되니?” 레이첼이 밖으로 나온 뒤 엄마는 집으로 돌아갔다.

“잠도 못 잤어요!” 꼬마 재키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면서 내가 대답했다.

“에비.” 내가 팔이 아플 때까지 꼬마 재키를 이리저리 흔들며 주었더니, 꼬마 재키가 킁킁거리며 웃었다. “내려.” 그가 말했다.

꼬마 재키를 내려주었다. “6월 1일부터 지하철 요금이 10센트 올랐다는 소식 들었어요?” 내가 물었다.

“들었지.” 재키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린 오늘 지하철을 타지 않을 거란다.”

“지하철을 안탄다고?”

“특별한 날이잖아.” 재키가 대답했다. “에베츠구장까지 택시타고 갈 거야.” 재키가 레이첼에게 말했다.

“스티브, 내가 택시를 잡는 동안 아기 손을 잡고 있어주렴.”

몇 분 후, 우리는 뒷좌석에 줄줄이 앉았다. 재키가 그의 아들을 무릎에 앉혔다. 나는 마치 가족인 것처럼 레이첼과 재키 사이에 앉았다.

우리는 선수 출입문 앞에 도착하자 택시에서 내렸다.

“경기장에 나가면, 당신을 부를게.” 재키가 레이첼과 입을 맞추려 몸을 숙이면서 말했다. “스티브, 경기 시작 전에 너를 선수 대기석으로 부를게. 공을 하나 줄 테니 사인을 좀 받으렴. 좋지?” 재키가 물었다.

“당연하죠.” 너무 웃어서 볼이 다 아팠다.

재키도 나를 향해 웃었다. “문제가 되진 않을 거야.” 꼬마 재키에게 뽀뽀하려고 그를 들어 올리며 재키가 말했다. “아빠한테 행운을 빌어주렴.” 꼬마 재키는 몸을 숙여 아빠의 볼에 뽀뽀했다.

“착하지.”

재키는 유니폼으로 갈아입기 위해 클럽회관으로 서둘러 갔다. 그리고 레이첼은 서둘러서 우리를 데리고 회전문을 지나 구장의 볼록한 곳으로 들어갔다. 선수들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다행히 꼬마 재키도 그랬다. 너무 일렀기 때문에 경기장은 사실상 텅 비어있었다. 꼬마 재키와 나는 우리 좌석 줄에 서서 서로 공주고 받기를 했다. 몇 번 공이 우리 손에서 벗어났다. 꼬마 재키는 손뺑을 치며 위 아래로 펄쩍 뛰었다.

“그만.” 세 번째가 되자 레이첼이 혼을 냈다.

재키는 엄마가 들어 올려 그녀의 무릎위에 앉혀서 구장에 있는 아빠를 손으로 가리키기 전까지 떼쓰며 큰소리로 울어댔다.

우리가 다저스 팀 선수 대기실로 안내를 받아 내려갔을 때, 선수들은 타격연습을 마무리 하고 있었다. 내가 아키 본, 프리처 로우, 그리고 길 호지즈에게 사인을 받는 동안 선수들은 레이첼에게 인사를 건네고 꼬마 재키를 간지럽혔다.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은 “와, 고맙습니다.” 뿐이었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팀이 타격연습을 하는 동안 레이첼은 우리에게 핫도그와 오렌지 주스를 갖다 주었다. 우리는 땅콩 봉지를 들고 경기 시작 시간에 맞춰서 자리로 돌아왔다. 브루클린 다저스 팀이 경기장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소리를 질렀다. 1회 말에 재키는 우야 쪽으로 라인 드라이브(지면 가까이에서 직선으로 날리는 강력한 타구)를 치고, 3루로 도루를 성공하고 점수를 올렸다.

레이첼이 나를 보며 말했다. “너와 너희 반 아이들이 재키에게 행운을 준 것 같아!”

“그러길 바라요.” 환하게 웃으며 내가 말했다.

재키의 엄청난 활약은 계속되었다. 5회 내내 우리는 꼼짝 않고 서있었다! 덕 휘트먼이 걸어서 출루했다. 재키는 왼쪽으로 땅볼을 쳤고, 본이 점수를 냈다!

꼬마 재키와 나는 벌떡 일어났다.

“애들아, 앉으렴.” 칼 푸릴료가 타자석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을 때 레이첼이 말했다. 푸릴료가 내야 땅볼을 치고 아웃되는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피 위가 몸을 풀 자 우리는 다시 벌떡 일어났다.

“피 위! 피 위!” 우리는 함성을 질렀다. 피 위가 높이 친 공 덕분에 재키는 3루까지 갔다.

엘머 리들이 폭투를 던지면서 재키에게 틈을 내줬다. 타이밍과 스피드에 자신 있는 재키가 도루했다.

팬들이 일어서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경기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꼬마 재키가 귀를 막을 정도였다. 레이첼은 그를 안아 올렸다.

“아빠가 해냈어.” 그녀가 아들한테 말했다. “너와 스티브가 아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것 같구나.”

다저스는 파이어리츠와의 경기에서 6대 2로 승리했다.

우리 반 애들 전부와 말리켄 선생님은 재키와 레이첼에게 경기를 볼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편지를 썼다. 말리켄 선생님은 재키와 함께 보낸 시간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구 경기는 내가 받고 싶은 생일선물 중 최고였다. 하지만 부모님도 깜짝 놀랄만한 선물을 주셨다. 그들은 그 선물을 경기가 있기 며칠 전 내 생일날에 주셨다.

빛나는 은색 종이로 포장되어있었다. 포장지를 뜯었더니 클리브랜드의 L-17 비행기 모형 조립세트였다. 믿기지가 않았다!

6월 27일, 일요일, 아빠와 나는 모형 비행기를 만들려고 지하로 내려갔다. “스티브, 이 L-17 모형은 내가 그동안 만들었던 어린이용 비행기 모형들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것이란다.” 아빠가 말했다. “내가 보니 너의 만들기 수준이 이 정도는 할 만할 것 같더구나.”

“멋져요.”

나는 상자 겉표지에 있는 매끈한 크롬 비행기 사진에 눈을 고정한 채 말했다. 내 다른 모형비행기들은 가격이 십 센트 정도 인데 이건 1달러 씩이나 했다. “이 조립세트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건 만들기가 훨씬 복잡할거야. 연료통이랑 착륙기어도 달수 있단다. 날지는 못하지만, 정말 멋지지. 이건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겠구나. 시간도 좀 걸리고 인쇄심도 필요할거야. 준비됐니?”

“당연하죠.” 내가 대답했다. 모형 비행기라면 나 혼자서도 오후 내내 만들면 다 완성하곤 했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내가 물었다.

“여름 내내 만들지 않을까.” 아빠가 대답했다.

“에이, 그건 너무 오래 걸려요.”

아빠와 나는 그날 밤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설계도를 꼼꼼히 보고 비행기를 만들 전략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형태의 항공기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사용되었었다. 정찰용으로 만들어졌는데, 군인과 가벼운 화물 운반용으로도 쓰였단다. 우리가 만드는 건 발사나무로 만들어 졌다는 것만 빼면 정말 실제 비행기와 똑같이 생겼단다.” 작업대 위 벽에 걸려 있는 액자에 담긴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의 표지를 올려다봤다. 1944년 12월 9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표지 사진에는 모형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기사 제목은 ‘모든 소년들은 모형비행기를 만들고 싶어 한다.’였다.

“이 큰 나무에 그려진 부품들을 잘라서 기본 구조를 만들어 보자꾸나. 내가 잘라 줄 테니 네가 그것들의 모서리가 윤곽선을 따라 정확하게 맞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사포질을 하렴.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 순간을 꿈꿔왔단다.” 아빠가 말했

다.

“어떤 순간이요?” 내가 물었다.

“너와 내가 함께 우리의 첫 번째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순간이지.” 아빠가 설명했다.

“이게 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빠가 야구와 모형 비행기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두 가지를 너와 함께 하는 순간만 기다린 거란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대화를 멈추고 마지막 나무 조각까지 사포질을 끝냈다.

일요일이면 대부분 아빠와 나는 함께 모형 비행기를 만들었다. 조각들을 자르고 사포질을 하는데 몇 시간 씩 걸리곤 했다.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잠깐 쉬고 나서 엄마가 저녁을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다시 만들기에 열중했다. 가끔 저녁에는 나 혼자서 만들기도 했다.

여름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나자, 날개와 꼬리 부분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기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비행기의 기체는 곡선들 때문에 가장 복잡한 부분이다. 조그만 발사 나무 조각들을 비행기의 기체를 이루는 삼각형에 끼워 맞추기까지 2주도 넘게 걸렸다.

어느 더운 오후에 나는 스틱볼을 하고 집에 와서 곧장 지하실로 향했다. 내려가니 비행기 위로 몸을 숙이고 있는 아빠가 보였다.

“아빠.” 계단에서 내가 불렀다.

“왔구나, 스틱브.” 그가 대답했다.

나는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왜 제가 올 때까지 안 기다렸어요?”

아빠가 고개를 들었다. 두 눈이 빨갛다. “미안, 스틱브. 오늘 안 좋은 소식을 들었거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여기 내려와서 만들고 있었단다. 그가 대답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무슨 일인데요?”

“베이브 루스가 오늘 암으로 죽었단다.” 아빠가 말했다.

“이런, 아빠, 안됐네요.”

“이 틀 동안 양키 경기장 정문에 그의 빈소가 차려질 거야. 내일 나도 가볼 거

란다.”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사람이 많아서 줄이 길 텐데, 게다가 넌 학교도 가야지.” 아빠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가 경기하는 걸 본적 있나요?” 내가 물었다.

“경기는 보지 못했지.” 아빠가 대답했다.

“베이브는 전설적인 야구선수였다. 그가 714개의 홈런을 쳤다는 걸 알고 있었니? 그는 정말 뉴욕의 명물이었지. 모두가 그를 좋아했어. 심지어 다저스 팬들도. 우린 메이저리그 야구의 위대한 선수 한명을 잃은 8월 16일을 기억할거야.” 손수건에 코를 풀면서 아빠가 말했다. “자 이제. 어디 우리가 오늘 기체를 완성할 수 있을지 볼까. 지루한 작업이긴 하지만, 이제 다 끝나간단다.”

“네, 아빠.” 아빠 옆에 있는 의자에 올라앉으면서 나는 인정했다. 아빠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나와 함께 비행기를 만들면서 아빠 기분이 좀 나아지길 바랐다.

우리는 말없이 만들기만 했다. 기체를 완성했을 때, 우리는 모형 비행기를 사포로 갈고 얇은 종이와 천, 그리고 마감용 가느다란 발사나무오리로 비행기를 덮었다. 잠자러 가기 전까지 우리는 크롬 색으로 비행기를 색칠하고 가운데 아래쪽에 빨간 줄을 그려 넣으면서 완성했다. 아름다웠다!

다음 일요일, 아빠는 나를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형비행기를 뿔내고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접이식 테이블 위에 우리가 만든 비행기를 올려놓고 누군가 알아봐주기를 기다렸다. 아빠는 다른 비행기들을 구경하러 갔고, 나는 우리 테이블을 지키고 있었다.

“L-17이구나. 그렇지 않니, 꼬마야?” 어떤 나이 많은 남자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면서 말했다.

“맞아요.” 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마무리가 정말 잘되었구나. 부드럽고. 웬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남자가 말했다.

“좀 더 만들어야 해요. 아빠랑 저는 착륙기어도 만들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난 공군 비행기 조종사였단다. 애네 들에 화물을 싣고 북 아메리카로 날랐었지.” 그 남자가 손가락으로 기체를 만지며 말했다. “잘 만들었구나.”

“아빠랑 같이 만들어서 그래요.” 내가 대답했다.

“그렇지.” 그 남자가 말했다. “가지 말고 있으렴. 오후에 몇몇 애들이 자신들이 만든 모형비행기를 날릴 거야. 어린애가 참 열심이구나. 맘에 들어.” 그가 덧붙여 말했다.

아빠가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나는 환하게 웃었다. “아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우리 비행기를 칭찬하고 갔어요.”

“자랑스럽구나, 아들.”

“우리 날수 있는 것도 만들까요?” 내가 물었다.

“좋지.”

그 여름동안 우리는 다저스 팀을 잇고 지냈다. 우리는 라디오로 경기중계를 들으면서 모형비행기를 만들었다. 그 덕분에 다저스가 지난 10월 꼴찌에서 3위까지 올라왔을 때에도 우리는 심하게 마음을 졸이지는 않았다.

다저스 팀은 시합을 위해서 브루클린을 오래 떠나 있었다. 레이첼이 재키가 떠날 때 장문의 편지를 그녀에게 썼고, 금요일 마다 꽃을 보내고 있다고 엄마에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엄마는 우리 아빠도 재키를 보고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엄마는 그 얘기로 한참을 큰 소리로 웃었다.

나는 아빠에게 엄마와 레이첼과 나는 대화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아빠는 자신은 맨해튼에서 일하기 때문에 부인한테 사랑의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고 나에게 알려주었다. 나도 동의했다. 아빠는 근무시간이 길긴 하지만, 저녁마다 집에 돌아온다. 나는 내가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

8월 29일에 재키는 한 경기에서 홈런, 3루타, 2루타, 그리고 1루타까지 치면서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했다! 재키는 도루 하나와 3득점, 그리고 2타점을 기록했다. 7연승을 하면서 다저스는 1위로 올라섰다. 야, 우린 그날 진짜 제대로 신났었는데!

노동절이 지났고 새 학년이 되었다. 새로운 반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난다니!

몇 번의 힘든 패배를 겪고, 다저스는 3위로 그 시즌을 마무리 했다. 결승까지 못

가서 안타까웠다. 울지는 않았지만, 난 하루 온 종일 내가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서 말도 못 꺼냈다.

세나와 나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사학년이 된지 한 달이 지났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나는 재키를 발견했다.

“안녕, 스티브.” 우리가 그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자 재키가 인사했다. “애가 세나니?”

“맞아요.”

“드디어 보게 되는 구나, 반가워, 세나야.” 재키가 오른손을 그녀에게 내밀며 말했다. “스티브는 항상 네 애길 하거든.”

“스티브는 저한테도 아저씨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로빈슨 아저씨. 아저씨는 애한텐 영웅 이예요.” 세나가 말했다.

“나는 그와 친구란다, 세나야.” 재키가 내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학년이 되니 어떡니?” 그가 물었다.

“꽤 힘들어요. 숙제도 훨씬 많고요.” 우리가 말했다.

“말리켄 선생님은 자주 보니?”

“매일 복도에서 마주쳐요.” 내가 대답했다. “아저씨가 여전히 우리 동네에 사는지 물어봤어요.”

“세나야, 너도 작년에 말리켄 선생님한테 혼났었니?” 재키가 물었다.

“그럼요.” 세나가 대답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엄격하시거든요.”

“스티브가 해준 이야기로 봐서는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번 시즌 다저스 팀 성적이 아쉽지 않으세요?” 세나가 물었다.

“3위에 그쳤다는 건 아쉽긴 하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아저씨는 타점, 2루타, 3루타, 누타수, 그리고 도주 기록도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잖아요. 게다가 내셔널리그에서는 최고의 2루수로 선정 되었잖아요. 그런 성적을 보면 기뻐해야죠.” 내가 재키에게 알려주었다.

“야구는 팀 스포츠란다.” 재키가 대답했다. “어떤 선수도 자기 자신만의 성적만 생각해서는 안 된단다. 우리 팀은 1위를 차지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렸지.”

“이제 뭐하실 거예요?” 세나가 물었다.

재키는 손을 자기 엉덩이 위에 올리고 세나와 나를 내려다보았다. “한 가지 분

명한 건 지난겨울 휴가 때처럼 많이 먹을 생각은 없단 거야.” 그가 말했다.

세나와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레이첼 아줌마랑 같이 가족들을 만나러 캘리포니아로 돌아갈 건가요?”

“올해는 안 갈 거란다, 스티브. 우린 뉴욕에서 지낼 거야. 캄파넬라랑 나는 한 달 동안 친선경기를 하러 돌아다니기로 했거든. 우린 흑인 야구 리그 팀인 뉴욕 쿠 반즈와 경기할거야. 하지만 할렘 YMCA에서 일하려고 11월쯤엔 뉴욕으로 돌아올 거야.

“휴, 전 아저씨가 몇 달 동안 떠나있을 줄 알았어요.” 안도하며 내가 말했다.

재키가 나에게 웃어 보였다. “사실은 레이첼과 나는 뉴욕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단다.”

“그게 무슨 말 이예요?” 재키네 가족이 계속 우리 이웃으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어 내가 물었다.

“우리는 집을 알아보고 있단다. 재키가 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이 필요하거든.”

“그럼 털든 가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럴 수도 있지.” 재키가 대답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재키와 나는 막 친구가 되었는데, 그가 이사 갈지도 모른다니? 절망감이 들었지만, 재키한테 내가 절망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다. 세나와 나는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나는 집으로 갔다.

다음날, 친구를 코피 나게 만든 것 때문에 나는 교장실로 불려갔다. 지난 봄 이후로 나는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 웨슬러 선생님이 나에게 실망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변명 거리라도 있니?” 그녀가 물었다.

“조엘이 시비를 걸었어요.” 나는 싸움 때문에 여전히 화가 나서 중얼거렸다.

“스티브, 그렇다고 사람 얼굴을 때려서는 절대로 안 된단다.” 웨슬러 선생님이 말했다. “엄마가 집에 안 계셔서 아빠에게 전화했단다. 아빠가 널 데리러 오고 계셔.”

“안돼요, 일하시는 아빠한테 절 데리러 오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말했다.

“그렇단다.” 웨슬러 선생님이 말했다. “심각한 교칙 위반이야. 부모님께 알려야

만 한단다. 아빠를 기다리는 동안, 조엘에게 사과 편지를 쓰도록 해.”

“조엘도 저한테 사과 편지를 쓰나요?”

“조엘하고는 점심 먹고 나서 볼 예정이란다.” 웨슬러 선생님이 대답했다.

한 시간 후에, 아빠가 교장실로 들어와서 의자에서 나를 잡아챘다. “집에서 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자꾸나.” 그가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다. 나 때문에 아빠가 엄청 화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일하는 시간에 학교에 불려왔다는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

“스티브, 참을 줄도 알아야지.” 집에 오자마자 아빠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럼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주먹은 쓰면 안 되지.”

“그럼 제가 조엘한테 멍청이나 계집애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말대꾸하지 마.” 아빠가 소리를 질렀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싸움이나 하는 곳이 아니야.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예의를 갖춰야지. 알겠니?”

“만약 애들이 저한테 무례하게 하면 전 뭐라고 해야 하죠?”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해결해야지.”

“반 애들이 전부 날 놀려도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럴 순 없어요!” 내가 말했다.

“그럼 4학년 내내 벌 받을 생각해. 스틱볼 금지야. 모형비행기 만드는 것도 금지. 썰매도 금지. 알겠지?”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안돼요.”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제가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작단 말이 예요. 당하기만 할 수는 없어요.” 불만을 토로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의자를 끌고 와서 아빠가 내 옆에 앉았다. “너 대체 왜 그러니? 한동안 별 문제 없는 것 같더니. 못 마땅한 거라도 있니?”

울음이 터졌다. “재키가 털든가를 떠날 거래요. 그를 다시 못 볼지도 몰라요.” 나는 울먹거리며 말했다. 재키는 친선경기를 하러 떠났고, 그를 못 본지 벌써 몇 주나 지났다. 재키가 영원히 떠난다면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리오렴, 아들아.” 내 팔을 당겨 나를 일으키며 아빠가 말했다. “눈물 닦으렴. 로빈슨 가족과 넌 이미 특별한 친구가 되었잖니. 같은 동네에 살지 않아도 친구로

지낼 수 있단다. 계속 연락하고 지내도록 도와줄게.”

“로빈슨네 가족이 이사 가도 계속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예요?”

“그렇단다.” 아빠가 말했다. “그리고, 다저스 팀이 경기하러 오면 에베츠 구장에 가면 되잖니. 로빈슨 가족한테 편지를 보낼 수도 있지. 그리고 네가 찾아갈 수도 있고 말이야.” 아빠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한 동네에 살던 때랑은 다르겠지만, 친구는 언제나 친구인거란다. 아들아, 살아가면서, 넌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될 거야. 다 그런 거란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손을 뺀어 아빠를 껴안으며 내가 말했다.

“학교에서 잘 지내겠다고 약속하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말썹부려서 수업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다. 아빠도 일하는 시간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되거든. 알겠니?”

“네, 아빠.” 내가 대답했다. “이제, 조엘한테 편지를 써야겠어요. 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말해줄 거예요. 아마 우린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뒤,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고 있을 때, 친선경기를 끝낸 재키가 돌아왔다. 11월 초의 어느 따듯한 오후였다. 친구들과 나는 게임 하느라 그 구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

“재키!” 그가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내가 외쳤다.

재키가 가방을 현관계단에 두고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안녕, 스티브!” 그는 나에게 인사하고 나서 다른 애들에게도 인사했다.

“반가워요.” 내가 말했다.

“나도 반가워.” 재키가 대답했다.

“공 좀 저한테 패스해 주세요.” 내가 부탁했다.

“잠깐만, 스티브.” 그는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에게 축구공을 건네고 나서 나는 뒤돌아서 뛰어갔다. 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는 다시 뒤를 돌아서 재키가 공을 던지길 기다리며 뒤로 폴짝거리며 뒤로 움직였다. 공을 잡기 위해 두 손을 들어 올린 순간, 나선형을 그리며 내 쪽으로 날아오고 있는 공이 호놀룰루 베어스 팀에서 세미 프로 급 축구를 했던 프로 운동선수

가 던진 공이라는 걸 깨달았다. 옥!

심장이 두근거렸다. 무릎이 꺾였다. 양 손에 따가움이 느껴졌다. 그런데 공은 아직 내 손에 닿지도 않았다.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한 걸까?

공이 너무 세게 내 가슴을 향해 날아오는 바람에 나는 그대로 넘어갔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공은 여전히 내 손과 가슴 사이에 안겨있었다. 나는 공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고 함성을 질렀다!

제 8 장

12월 19일, 일요일. 스무 시간동안 붙어 닳친 눈보라는 50센티미터 쯤 쌓인 눈과 기록적인 추위를 남기며 지나갔다. 세나와 썰매를 타러 나가려고 나는 집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몇 시간이나 기다렸다.

내가 눈싸움과 공원에 있는 높은 언덕에서 썰매타기 시합을 할 생각에 부풀어있는 동안, 엄마는 가족들과 모여 하누카(11월이나 12월에 8일간 진행되는 유대교 축제)를 성대하게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번 해는 12월 26일부터 하누카가 시작될 것이다. 첫째 날 밤에 가장 큰 행사가 있다. 우리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들, 이모들, 그리고 사촌들로 꽉 찰 것이다. 저녁식사 시간에 옷을 갖춰 입는 것과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촌들한테 드라이델 게임(하누카 기간에 유대인 아이들이 정육면체 모양으로 생긴 장난감을 가지고 하는 게임)에서 지는 것만 빼다면 난 하누카가 정말 좋았다.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감자 팬케이크, 사과소스, 그리고 달콤한 도넛 만들고, 나무로 만든 드라이델 장난감과 호일에 쌓인 동전모양 하누카 초콜릿을 그릇에 담아 준비해두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도착하기 전에 메노라(유대교 전통 의식에 쓰이는 7-9개 갈래로 갈린 촛대)와 사탕들을 식탁 위에 놓아둘 것이다.

물론 나도 선물을 여덟 개나 받게 될 거란 생각에 들떠있었다. 엄마는 내가 뭘 갖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을 테지만, 나는 아침을 먹으면서 엄마에게 만들어 둔 선물 목록을 건넸다.

“오늘 썰매 타러 가도 되나요?”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자마자 물어봤다.

“우선 아침부터 먹으렴. 밥 먹고 나서 하누카를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 하자꾸나.” 엄마가 말했다.

“알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베이글에 스크램블 에그를 같이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는 오른 손에 손에 젖은 행주를 들고 조리대 옆에 서 있었고, 엄마 앞에는 메노라가 놓여 있었다.

“잘랐니?” 엄마가 물었다.

“네,” 의자에 앉아서 베이글에 잼을 바르면서 내가 대답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엄마가 나를 쳐다봤다. “스티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다는 걸 알고 있지.” 엄마가 운을 뚫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저녁을 먹을 때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전쟁 얘기를 했었다. 나는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다. 전쟁이 왜 시작된 걸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옳은 거지? 자유를 위해 싸우는 걸까? 아니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걸까? 아이들은 학교에 가긴 할까? 난 전쟁을 겪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모두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제안했다.

엄마가 메노라를 닦던 행주를 내려놓고 조리대 주변을 돌아서 식탁으로 걸어와서 앉았다. “스티브, 기특한 생각이구나.” 엄마가 말했다. “엄마도 중동에 있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사랑 받고,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미국에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좋겠어. 안된 일이지만, 그럴 수는 없단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게 도와 줄 수는 있겠지.

“정말요? 어떻게요?” 도와줄 방법이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내가 물었다.

“아빠와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냈단다. 다음 주 일요일이 하누카 첫 날이잖니. 가족들이 모두 우리 집에 모여 연휴를 보낼 거란다. 아빠와 나는 하누카 첫째 날 밤에 단순히 가족이 모여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큰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해. 유대교의 믿음을 진정으로 실천하기로 했어. 너도 미츠바(유대교의 계율 또는 선행)를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럼요.” 내가 말했다. “어른들 집에 찾아가서 정원에 꽃도 심어드리는 것처럼 착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 스티브. 일요일에 아빠가 첫 번째 초에 불을 켜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바라는 특별한 기도를 할 거야.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아랍과 유대인 아이들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려는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할 거란다.”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그 애들은 아주 먼 곳에 있잖아요. 어떻게 돈을 전해주죠?”

“유니세프라고 하는 유엔 기관을 통해서 돈을 보낼 거야. 그 단체는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거든.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한 뒤로 유니세프는 고향을 떠나 도망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전쟁 속에 꼼짝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음식과 생필품을 보내주고 있단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들, 이모들, 그리고 너와 네 사촌들에게도 같이 유니세프에 돈을 보내자고 할 생각이야.”

“전 2달러 밖에 없는데요.” 내가 말했다.

엄마가 웃었다. “너와 네 사촌들이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단다.”

“뭔데요?”

“음, 너희들이 하누카에 받을 선물 중 하나를 포기하면 어떨까.” 엄마가 말했다.

“그 장난감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들한테 보내줄 건가요?” 내가 물었다.

“아니. 그 애들한테는 장난감보다 음식과 담요가 더 필요하단다. 우리는 너에게 선물을 여덟 개 주는 대신, 일곱 개의 작은 선물을 줄 거야. 남은 돈을 엄마와 아빠가 이스라엘에 보내려고 따로 모아둔 돈에 보태는 거지. 삼촌들과 이모들은 네 사촌들에게 마찬가지로 조금씩 양보하라고 하겠지. 그럼 너와 네 사촌들은 미츠바를 행하게 되는 거란다.”

잠시 엄마의 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다. 나는 베이글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이해는하지만, 그래도 조금 실망스러웠다. “그 애들은 어디서 폭탄을 피해요?” 내가 물었다.

“가족들과 함께 지하에 파 놓은 피난처로 숨기도 하지. 하지만 밤낮없이 폭탄과 총격이 쏟아지기 때문에 학교 책상 밑이나 건물 모퉁이 뒤에 숨기도 한단다. 사실, 어떤 곳도 안전하지는 않단다. 아이들은 전쟁의 무고한 피해자지.”

“전쟁에 대해서 상상해 봤는데, 만약 털든가에 폭탄이 떨어지면 우린 어디로 가야할까요?” 내가 말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것도 예측하기 어렵지. 네가 그런 경험을 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줄게. 여긴 안전하단다.” 엄마가 말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내가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전쟁과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었다. 이제는 아니다. 엄마 말이 맞았다. 아이들은 아무 죄도 없다. 그들이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자라야 한다는 사실에 미안해졌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그 아이들의 두려움이 덜어질지도 모른

다. “그렇게 할게요, 엄마.”

엄마가 오른 손을 들어서 내 오른손 위에 놓았다. “네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단다. 스티브, 넌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구나.”

“그게 무슨 뜻 이에요?” 내가 물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안단 뜻이지. 당연히 그래야지.” 내 볼에 뽀뽀를 해주며 엄마가 말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내가 선물목록을 올려둔 조리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내가 놓아둔 그대로 있었다. 좋은 일을 하려면 선물목록에서 뭔가 비싼 걸 포기해야 했다. 선물 목록을 집어 들고 *브루클린 이글즈*에 실린 광고에서 본 디젤 로드롤러 장남감에 가위표를 했다. 내가 원했던 선물 중에서 가장 비싼 거였다.

“고맙구나, 스티브.” 엄마가 나를 보며 웃었다. “부탁이 하나 더 있단다.”

“뭔데요?” 내가 물었다.

“돈과 함께 내가 그 아이들에게 쓴 편지를 같이 보냈으면 한단다.”

“뭐라고 쓰죠?”

“만약 네 친구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전쟁을 겪고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렴.” 엄마가 나에게 종이를 건네주며 말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적어보렴.”

“누구한테 써야하죠?”

“‘친구에게’ 라고 쓰고 시작하면 되지.” 엄마가 제안했다.

나는 다시 의자에 기대고 앉아서 주위에서 총소리와 폭탄 터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상상을 해봤다.

편지를 쓰는 내 손이 떨렸다.

친구에게,

나는 스티브 새틀로우야. 나는 뉴욕 주에 있는 브루클린에 살고 있어. 이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우리가족과 나는 도움을 주고 싶어. 폭격을 멈추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족과 나는 도움을 주고 싶어. 우리는 돈과 담요를 보낼 거야. 그럼 너희들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춥지 않겠지.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서 너희들이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할게. 너희들은 정말 용감해. 언젠가 우리

가 만날 수 있길 바라.

스티브가

제 9 장

월요일 아침 일찍 드디어 눈보라가 잦아들었다. 평소 같았으면 부산했을 도시가 수북한 눈에 파묻혀 조용했다. 오직 몇 안 되는 자동차들과 택시, 버스만이 험곳은 날씨와 맞서 금방 제설 작업을 마친 그나마도 양 옆에 줄지어 세워진 눈에 갇힌 차들로 좁아진 도로 위를 엉금엉금 기어 다니고 있었다.

눈보라에도 불구하고, 휴교는 하지 않았다. 내 방 창문으로 아파트 건물들과 낮은 벽돌집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나와서 열심히 학교로 모험을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수업이 끝나면, 진짜 재미있는 시간이 펼쳐질 것이다. 플란넬과 울 소재의 옷을 겹겹이 입은 채, 나는 세나와 우리 집 앞에서 만났다. 우리는 썰매를 끌면서 넓은 언덕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조심하렴.” 엄마가 현관 계단 맨 위에서서 우리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길에 눈이 잘 치워지지 않았거든. 운전엔 자신 있다고 차를 타고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차들도 미끄러질 거야.”

“걱정 마세요, 엄마” 나도 큰소리로 대답했다.

“길이 얼어 있는지 잘 보고 다니렴.”

세나와 나는 학교를 지나쳐서 텨든가를 계속 걸어 올라갔다. 한동안 우리는 춥지 않은 척 했다. 그 대신 나는 속으로 우린 지금 모험을 떠나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손끝에 감각이 없어졌어.” 세나가 불평했다. 우린 집에서 두 블록 밖에 벗어나지 못했다.

“한손은 코드 주머니에 넣어.” 내가 알려줬다.

“그럴 수 없어.” 그녀가 말했다.

“왜?”

“양손으로 썰매를 끌어야해. 너무 무겁거든.” 세나가 말했다.

세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세나는 키가 나랑 비슷하지만 더 말랐다. 내 덩치는 썰매 두 개를 끌 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았다.

“세 블록만 더 가면 되, 세나야. 갈 수 있겠지?” 그녀가 힘내기를 바라면서 세나를 슬쩍 쳐다봤다.

“안 간다고는 안했어.”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곳은 동화나라 속 겨울의 모습이였다. 언덕에는 썰매를 타는 아이들이 가득했다.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가만히 쌓여있는 눈 속을 파고들었다. 눈뭉치들이 여기저기로 날아다니고 있었다.

옆을 슬쩍 봤더니, 세나는 무슨 꿩꿩이가 있는 것처럼 웃고 있었다. 나는 썰매를 바닥에 놓고 그녀에게서 등을 돌려 미끄러지기 좋을 만한 곳을 찾았다. 축축하고 차가운 눈뭉치 하나가 내 재킷에 맞아서 후드득 떨어졌다. 왼쪽 어깨를 맞은 느낌이 들어서 세나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는 눈 뭉치를 손에 쥐고 그녀에게 획 던졌다.

세나는 피하지도 똑바로 서서 어디 한번 맞혀보라고 나를 부추겼다. “누가 이기나 보자!” 우린 동시에 외쳤다.

우리는 웃느라 싸우기도 힘들었지만, 열심히 싸웠다. 스무 개 정도 던지고 나서 내가 멈췄다. 나는 질척해진 울 장갑과 얼어버린 두 손을 들고 항복했다.

세나와 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쪽으로 언덕을 올라가서 썰매 위에 올라타서 늑대들이 우리를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빠르게 내려왔다. 우리는 손가락과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언덕을 오르내렸다.

내가 집에 돌아 왔을 때, 마침 재키는 그의 집 앞 계단의 눈을 치우고 있었다. 그와 이야기 하려고 나는 멈춰 섰다.

“안녕, 스티브. 어디 갔다 오니?”

“썰매 타고 왔어요.” 내가 말했다.

“47번가 공원에서?”

“아니요. 세나랑 저는 언덕들이 많은 곳에 갔었어요.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내가 설명했다.

“썰매는 타본 적이 없는데.” 재키가 혼잣말을 했다. “재밌겠구나. 꼬마 재키가 좀 더 크면 같이 꼭 타봐야겠구나.”

“오늘 정말 춥네요.” 별벌 떨면서 내가 말했다.

“내가 자란 캘리포니아 남부는 이렇게 춥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요? 그럼 겨울이 어땠는데요?” 나는 놀라서 대답했다.

재키가 웃었다. “캘리포니아는 겨울이라고 해도 별게 없단다. 이스트 코스트와는

다르지, 아무렴. 일 년 내내 거의 따뜻하단다. 기온이 섭씨 10도나 15도 쯤까지 떨어지면, 얇은 재킷을 입는단다. 일 년 중 이맘때쯤이면 나는 눈썹이 아니라 골프채를 잡고 있었지. 하지만 브루클린 다저스 팀에서 야구를 오래 하려면, 이런 추운 날씨에도 익숙해지는 게 좋겠지.”

재키는 남은 두 계단을 마저 다 치웠다. “들어와서 따뜻한 코코아 마실래?”

“집에 가야할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 모이니?”

“엄청 많아요.”

“좋겠네. 우리 이곳에 가족이 많지 않단다. 목요일에 잠깐 들려도 좋아. 집을 꾸밀 예정인데, 네가 온다면 꼬마 재키가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놀러올래?”

“물론이죠!”

“잘됐다, 하지만 부모님 허락은 받아야 해. 한시쯤 오렴. 세시쯤이면 끝날 거야.”

목요일에 나는 내 L-17 모형 비행기를 가지고 재키네 집으로 갔다.

레이첼이 문을 열더니 그녀의 팔로 나를 감쌌다. “얼른 들어와서 몸 좀 녹이렴. 재키와 꼬마 재키는 거실에서 트리를 꾸미고 있단다.”

“제가 만든 비행기예요.” 레이첼이 잘 볼 수 있도록 비행기를 높이 들어 보이며 내가 말했다.

“와! 대단한데.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비행기 모형이구나?”

“맞아요.” 내가 대답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오, 나는 전투기 리벳공으로 일했었거든.”

“리벳공이 뭐예요?” 내가 물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공장에서 일하던 여자들을 부르는 말이란다.” 레이첼이 설명해주었다. “리벳은 금속 못이야. 조각들을 이어 붙이려고 전투기에 망치로 그것들을 박는단다. 비행기 바깥쪽에서 안쪽에 있는 구멍으로 금속 못을 망치질 해서 박아 넣는 동안 비행기 안에 서있는 게 내가 하던 일이었단다. 못이 구멍을 뚫고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밖에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었단다. 전쟁은 먼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여자들은 싸울 수도 없었지. 우리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기꺼이 우리 그 일을 했단다.”

“멋있어요.” 내가 말했다.

“엄마는 잘 계시니, 스티브?”

“엄만 일요일 날 있을 가족 모임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잘 해내겠지. 도울 일이 있는지 거실로 들어가 보렴. 그이는 지금 전구도 달고 재키도 돌보느라 정신이 없을 거야. 나는 부엌에 가서 간식을 만들어 올게. 배고프니?”

“배고프진 않아요.” 내가 대답했다.

“따뜻한 코코아 줄까?”

“네, 주세요!”

거실로 들어가자, 내 입이 썩 벌어졌다. 재키는 엄청나게 큰 트리 옆 사다리 위에 서있었다. 그 누구네 집에서든 그런 나무는 본 적 없었다.

“에비!” 꼬마 재키가 나를 보자 소리쳤다. 나는 꼬마 친구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 빙글 돌고나서 다시 바닥에 내려 주었다. 그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막 시작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재키 아저씨.” 내가 불렀다.

“잘 왔어, 스티브!”

나는 그 초록색 나무에 가까이 다가갔다. 숲에 온 것 같은 냄새가 났다. 그 나무는 천장에 닿을 듯 말 듯 했다. 재키는 나뭇가지에 형형색색의 전구를 걸고 있었다. 그는 내려 보며 웃었다. “마침 잘 왔구나. 나무에 전구를 거는 것 좀 도와주렴.”

나는 거대한 나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렇게 높은 곳엔 손이 안 닿아요.” 흥분한 내가 말했다.

재키가 웃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사다리가 필요한 거지. 네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단다. 내가 위쪽에 전구를 두를게. 너는 아래쪽에 전구를 달면 되지.”

“알겠어요.” 나무를 반짝반짝하게 꾸미는 일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내가 말했다.

우리는 힘을 합쳐 전구를 꼭대기에서 아랫부분까지 감았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탁자에 둘러 앉아 코코아를 마시며 트리를 감상했다.

“정말 크고 너무 예뻐요!” 내가 감탄했다.

“뭐든 가장 큰 걸로 해야지, 그렇지, 아들?” 재키가 뿌듯해하며 말했다. “너희도 트리를 만들었니, 스티브?”

“아, 우리 집엔 트리가 없어요.”

“스티브, 너와 꼬마 재키를 위해 내가 특별히 색종이, 가위, 풀 준비했단다. 너희 둘이 트리에 걸어 둘 예쁜 장식들을 만들어 볼래?” 레이첼이 말했다.

재키가 조심스럽게 알록달록한 색깔의 전구를 나뭇가지에 걸고 있는 동안 꼬마 재키와 나는 손뼉을 치면서 부엌으로 달려갔다. 한 시간 후 우리는 깔깔거리며 트리에 종이로 만든 리스를 걸었다. 트리가 다 꾸며지자 레이첼이 전구의 플러그를 끼웠고, 꼬마 재키와 나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이제까지 내가 본 트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트리였다.

제 10 장

세나는 썰매를 타고 내 옆으로 지나가며 소리쳤다. “조심해!” 나는 장갑을 낀 손으로 속도를 높였고 그녀를 따라잡았다. 서로 부딪히면서 썰매가 넘어졌고 우리는 깔깔거리며 평평하게 다져진 눈 위를 굴러다녔다. 다음날도 우리는 엄청나게 쌓인 눈을 여전히 즐기고 있었다.

“굉장한데!” 우리가 눈 속에서 몸을 가누고 있을 때, 세나가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난 집에 가야겠어.” 내가 말했다.

“응, 나도. 곧 어두워질 것 같아.”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화가 나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스티브,” 내가 현관 복도로 들어서자 엄마가 불렀다.

“네, 엄마.” 나는 젖은 코트와 모자, 부츠, 그리고 장갑을 벗어던지며 대답했다.

“스티브, 당장 이리와.” 아빠의 고함이 들렸다.

“가요.” 서둘러 거실로 들어가다 젖은 옷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나도 소리쳤다. 내가 공원에서 너무 오래 놀았나? 병원에 가기로 했던 날인가? 아빠가 기분이나쁜 이유를 생각해내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았다. “제가 잘못된 게 있나요?” 문으로 들어서며 내가 물었다.

“네가 재키 로빈슨씨에게 크리스마스트리를 달라고 했니?” 아빠가 다그쳤다.

나는 아빠의 질문을 속으로 다시 되 뇌었다. *크리스마스트리라니*. “아니요. 재키네 가족이 나무 꾸미는 걸 도와주려 갔었어요. 그리고 재키가 우리 집에 트리가 있는지 물었어요. 난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벽에 초록색 한 그루가 기대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로빈슨네 나무보다는 크지는 않았지만, 너무 예뻐다. “맙소사!” 내가 소리 질렀다. “재키가 저 나무를 제게 사준 거예요?”

“분명히 트리를 갖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단 거지, 스티브?” 아빠가 다시 물었다.

“안 그랬어요.” 나무 때문에 일어난 소동에 어리둥절해서 재차 대답했다. 이미 머릿속에는 어떻게 꾸밀까 생각 중이었다.

“스티브, 이건 심각한 일이야. 저건 크리스마스트리란다.” 아빠가 그 아름다운 초록색 나무를 가리켰다. “네가 재키에게 사달라고 했니?”

“아니요, 안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그냥 그에게 우리 집엔 나무

가 없다고만 했어요.”

“그에게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했니?”

“아무도 크리스마스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말했다. “우린 그냥 이렇게 생긴 나무를 장식했을 뿐 이에요.”

“스티븐,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보렴.” 엄마가 긴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엄마 옆에 미끄러져 앉았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이브고 내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걸 알고 있니?”

“아니요.” 내가 말했다. 내 친구들 중 누구도 크리스마스에 말해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하누카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솔직히, 엄마...저는 엄마가 저런 나무를 가지고 와서 크리스마스트리라고 해도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을 거예요. 난 어제 이전에는 그 누구의 집에서도 큰 나무가 있는 걸 본적이 없어요. 오, 그건 정말 예뻐요.”

“로빈슨네 집에서 봤단 얘기구나. 그렇지, 스티브?”

“맞아요.” 내가 대답했다. “우린 그걸 조명과, 빛나는 여러 가지 색깔의 전구로 휘 감았어요. 레이첼은 심지어 꼬마 재키와 제가 색종이로 장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아무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 그냥 트리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을 참으면서 내가 말했다. “제가 잘못된 게 있나요?”

엄마가 두 팔로 나를 안아주었다. “아니란다, 얘야. 그건 오해야. 이제 됐다. 레이첼에게 전화해서 설명해주는 게 좋겠구나.”

“아빠, 저 나무를 가져도 되나요?”

“안된다, 스티브. 그건 옳지 않은 일이야.” 아빠가 대답했다.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아. 그건 기독교에서 기리는 날을 상징하는 거란다. 하누카처럼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인 휴일이자 전통이기도 하단다. 크리스마스트리와 같은 상징들 주변에 가족들이 모여서 선물을 교환하는 날이기도 하단다. 문제는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다른 믿음과 각각 다른 기념일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네 엄마와 나는 그런 차이들을 존중한다. 우리는 로빈슨 가족이 너에게 그들의 종교적인 경험을 하게 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

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구나. 그래서 엄마가 레이첼에게 전화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잘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그들이 마음상하지 않을까요?” 내가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셔서 크리스마스트리를 본다면 충격 받으실 거야.” 아빠가 설명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물었다.

아빠가 웃었다. “당신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아, 사라?”

“아마 ”이런, 아이고“ 하면서 어찌면 쓰러질지도 몰라.” 엄마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맞아. 그러니까 하누카의 저녁 식사 모임을 망치기 전에 치워버리자꾸나!” 아빠가 말했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반대했다.

“당연히 그걸 치워야 하는 거야!” 아빠가 쏘아붙였다.

나는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종 잡을 수 없었다. 나무는 재키 로빈슨이 나에게 준 선물이었다. 그가 나에게 연습할 때 사용했던 글러브를 주었던 것처럼 특별한 선물이다. 하지만 아빠가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는 한다. 그래도, 그건 우정의 선물이다. 나는 재키와의 우정을 망치는 일은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 제발 레이첼한테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애원했다. “나는 재키한테 저 나무를 그냥 돌려줄 수는 없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럴 거예요.”

“아빠와 내가 왜 걱정하는지 이해했니?” 엄마가 말했다.

“조금은요.” 내가 대답했다. “저한테는 그건 그냥 공원에 있는 나무랑 똑같아요. 그건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가족들한테나 의미 있는 거예요, 메노라가 우리에게만 의미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그 나무가 꼭 크리스마스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와 내가 조용히 얘기 하는 동안 아빠는 거실 반대편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빠...그건 선물일 뿐 이예요.” 아빠를 올려다보며 투덜거렸다.

“아치, 스티브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엄마가 말하고 나서 머뭇거렸다. “부모님께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 스티브에게 특별한 동네 친구가 있는데, 그들이 나

무를 준거라고 말이야.”

“그럴 순 없어.” 아빠가 큰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빠...” 내가 애원했다.

“사라, 이걸 치워야지.” 아빠가 강력히 말했다.

아빠가 결단을 내리려고 할 때, 초인종이 울렸다. 아빠는 아무 말도 없이 문을 열어 나갔다. 잠시 후 로빈슨 가족과 함께 거실로 돌아왔다.

내 입이 떡 벌어졌다. *오, 안 돼. 아빠가 다 망칠거야.* 나는 생각했다.

나는 재키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안녕, 스티브!” 재키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날 향해 웃었다. “나무가 마음에 드니?”

머리는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여기, 레이첼과 내가 친구랑 장식들을 가져왔단다.” 재키가 ‘취급주의’라고 적힌 상자와 나무로 만든 천사를 건네면서 말했다. “이 천사는 맨 위에 다는 거란다.”

“이런, 고마워요.” 두 사람이 이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서 나는 재키에게서 눈을 떼서 아빠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기, 부담 갖지 말아요. 당신이 어제 우리 트리를 볼 때 스티브의 표정을 봐야 했는데...그게, 스티브가 트리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키, 우린 스티브를 아주 아낀답니다.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로요.” 재키는 분명하게 선의로 그렸음을 말했다.

“고맙게 생각해요.” 아빠가 마침내 말했다.

“사라, 우리가 선을 넘은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재키에게 어쩌면 당신이 트리를 오늘 늦게 살지도 모른다고 말했거든요.” 레이첼이 말했다.

“레이첼, 우릴 용서해줘요. 당신네 부부는 우리 아들에게 잘해줬어요. 우리 애도 당신들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물론 그 우정에 고마워하고 있어요.” 엄마가 대답했다. “재키가 이 예쁜 나무를 들고 왔을 때, 너무 놀라서 제가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우린 유대인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지내지 않거든요.”

“오, 세상에.” 레이첼은 엄마에게서 눈을 떼서 재키를 쳐다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재키가 사과했다.

“레이첼, 재키, 괜찮아요.” 엄마가 말했다. “당신이 좋은 뜻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다시피...당신네가 이 동네로 이사 오기 전까지 스티브는 다른 종교를 가진 가족들을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이 동네에는 유대인 가족들만 살거든요. 학교 친구들도 전부 유대인들이죠. 당신이 스티브를 초대했을 때, 전 그 애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걸 도와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에게 미리 말해줬을 거예요. 이번 주말 부터 우린 하누카를 지낼 거예요. 유대교의 휴일이죠, 그리고 올해는 우연히 크리스마스 다음날이네요.”

이 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 하며, 나는 엄마를 쳐다보다가 로빈슨 가족에게 눈을 돌렸다. 아빠를 흘끗 쳐다보고는 표정을 읽으려고 했지만, 모든 어른들은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다. 두 가족이 이 껄끄러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그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로빈슨 가족과 나의 우정을 지키는 일이 나무를 지키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너무 민망하네요.” 레이첼이 다시 한 번 말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재키가 덧 붙였다. “크리스마스를 지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보시다시피, 우린 스티브를 무척 아껴요. 우리가 털든가로 이사 오기 전까지 레이첼과 저는 유대인 가족들과 알고 지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야 당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일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말을 잘못하면, 문제를 일으킬 거란 걸 알고 있었다.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웃음소리가 튀어나왔다.

“아이, 아빠, 이거 좀 웃긴 상황이네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삼키며 내가 말했다.

나는 엄마를 흘끗 쳐다봤다. 그녀도 이 상황이 웃기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엄마와 나는 동시에 웃음을 터트렸다. 나중에 알았는데 재키와 아빠도 웃고 있었다. 우리가 모두 진정했을 때, 나는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아빠, 저한테 성의가 담긴 선물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물었다.

“그렇지,” 아빠가 인정했다.

“그럼 저 나무를 받아도 되겠네요?”

재키가 끼어들었다. “괜찮아, 스티브. 우리가 실수 한 거야. 내가 저 나무를 가져갈게.”

그런데 아빠가 손을 흔들며 재키의 말을 막았다. 우리는 아빠를 쳐다봤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걸 배웠네요.” 아빠가 말을 이어나갔다. “이제야 제가 융통성이 없었다는 걸 알겠네요. 일요일 저녁은 하누카의 첫날 밤 이에요. 가족이 모두 모여서 기도하고, 메노라 촛대에 불을 켜고, 특별한 식사를 하죠. 나중에 아이들은 게임도 하고요. 우리는 올해 하누카의 첫째 날을 평화를 빌기 위한 날로 지내기로 했어요. 내가 기도를 인도하고,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나누게 될 거예요. 당신과, 레이첼, 그리고 꼬마 재키도 우리와 함께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재키가 대답했다.

“잘됐네요.” 재키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그리고 레이첼과 엄마는 포옹을 나눴다.

“스티브,” 나를 보며 아빠가 말했다. “저 나무를 가져도 좋아. 아마 로빈슨씨 가족이 우리가 이걸 꾸미는 걸 도와주시겠지. 네 말이 맞았어. 이 나무는 우정의 선물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단다. 올해는 로빈슨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니 축복받았구나. 저 나무가 그 축복을 더 굳건히 지켜 줄 거야. 올해는 우리 가족이 크리스마스트리와 메노라와 함께 하겠구나.”

일요일 오후, 우리는 재키네 가족이 기도와 메노라에 불을 붙이는 걸 끝내기 전에 왔으면 하고 기다렸다. 재키가 걸어 들어오자, 우리 할머니가 가장 먼저 그에게 인사했다.

“로빈슨씨, 드디어 당신을 만나게 되다니 반가워요. 우리 스티비를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로빈슨 가족이 친척들과 인사하는 동안, 나는 할머니와 재키네 가족 뒤에 붙어서 천천히 따라갔다.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없기를 바랐다. 할머니는 인사가 끝나고, 재키 옆으로 가서 뭔가를 속삭이자 그가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할머니를 잘 아는데, 아마 크리스마스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이다.

엄마와 아빠가 마지막 음식 접시들을 들고 부엌에서 나와서 할머니가 재키와 이

야기 하는 모습을 봤다. 그들은 접시를 기다란 식탁위에 내려놓고 재키네 가족에게 인사하러 다가갔다.

“우리와 함께 해줘서 기쁘네요.” 아빠가 말했다.

“내가 이마 가족들에게 다 소개해줬단다.” 할머니가 말했다.

아빠가 할머니에게 키스하고 나서 이모들, 삼촌들, 그리고 사촌들을 모두 식탁으로 모이라고 불렀다. “기도를 짧게 올리고 메노라 있는 초 하나에 불을 붙일 거예요.” 아빠가 재키네 가족에게 말했다.

“재키,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여주시겠어요?”

재키는 당황한 것 같았다. “기꺼이.” 그가 그러겠다고 했다.

“좋군요. 걱정 말아요. 스티브가 도와줄 거예요.” 아빠가 말했다.

나는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두 남자를 올려다보고는 끄덕거렸다. 촛불을 켜는 일을 돕게 되다니 엄청난 영광이다. *아빠가 날 아주 신뢰한다는 뜻이군.* 나는 생각했다.

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앞에 서서 우리 가족과 재키네 가족을 마주보고 있었다. 발끝으로 선다면 크리스마스트리 꼭대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재키가 이사 온 이후로 우리가족의 삶에 여러 가지 놀랄만한 변화가 생겼다. 나는 고개를 돌려 키 크고 잘생긴 아빠를 올려다봤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란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매년 있는 이 축하의 자리에 기독교 친구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축복인 것 같아요. 하누카는 가족들이 모여 자유와 믿음, 평화를 기리는 시간 이에요. 재키가 저와 함께 메노라에 촛불을 켜는 걸 도와준다면 영광일 것 같아요.”

재키가 앞으로 나오자 아빠가 내 손이 메노라에 닿을 수 있도록 나를 두 팔로 들어 올려 주었다. “스티브, 재키가 가운데에 있는 초에 불을 켜는 걸 도와주렴.”

아빠의 팔에 의지해서 몸을 숙여 메노라의 가운데에 있는 초를 들어서 재키에게 건넸다. 아빠는 나를 재키 옆에 내려주었고, 재키는 아빠가 영어로 기도문들을 낭송하는 동안 파수꾼의 초에 불을 붙인 다음 그 불로 다시 첫 번째 촛불을 밝혔다.

아빠의 기도가 끝나자, 할아버지가 한발 앞으로 걸어 나와서 히브리어로 기도문을 낭송했다. 할머니는 살짝 눈물을 훔쳤고, 아빠가 내 손을 잡았다.

모두 삼삼오오 모여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재키 옆에 앉아서 그

에게 어떻게 작별인사를 해야 할지 고민 했다.

“다음 시즌이 기대되나요?” 내가 물었다.

“엄청 많이, 스티브, 난 1949년이 우리의 최고의 시즌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재키가 대답했다.

“왜요?”

“우리는 한 팀이자 리그로 오래 함께 했단다. 난 이제 더 이상 메이저리그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 이제 우리는 1위 자리를 되찾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단다.” 재키가 말했다.

“그럼 집을 사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좋겠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재키가 말했다. “우선 적당한 집을 찾아야지. 우리가 어디에 살던, 네가 온다면 환영이야. 너도 알지, 그렇지 않니, 스티브?”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에필로그

나는 아빠가 나를 위해서 남겨둔 그 상자에서 라이오넬 기차 세트를 꺼냈다. 그것은 1948년 하누카에 로빈슨네 가족이 나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나는 그날의 가장 즐거웠던 기억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재키가 할머니에게 그 나무를 우정의 상징이자 인류애를 나누는 것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설득하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아빠가 평화, 이해, 그리고 우정을 위해 기도한 뒤 재키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던 모습도 좋았다. 나는 기독교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신에게 기도를 드린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재키는 평등과 정의를 위해 기도했다. 그것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다른 일이었을까?

처음으로 나는 드라이델 게임에서 내 사촌들을 이겼다. 레이첼이 만든 맛있는 사과 파이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 다시없을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두 달 뒤, 나는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들이 보낸 수백 통의 감사 편지가 담긴 소포 하나를 받았다. 편지를 하나하나 다 읽었다. 나는 학교에 가서 반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겪은 전쟁이야기들을 해주었다. 우리 학교 전 학생이 수천달러를 모아서 유니세프에 보냈다.

새해가 되자 로빈슨네 가족은 퀸즈에 있는 세인트 올반스로 이사를 갔다. 그들이 이사 가는 건 나에게 힘든 일이었지만, 두터운 우정은 영원할거란 걸 알고 있었다. 내가 편도선을 제거했을 때, 재키가 병원으로 병문안을 왔다. 내 열 여섯 살 생일에 그는 1955년 월드 챔피언이 된 다저스 팀의 모든 선수 사인이 담긴 야구공을 보내주었다. 몇 년간 저조한 성적을 낸 다저스는 결국 월드시리즈 우승을 거머쥔 것이다.

아빠와 나는 에베츠 구장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전이나 가끔 재키가 털든가를 방문할 땐 그를 만나곤 했다. 하지만 재키는 1956년 시즌이 끝나고 메이저리그 야구를 그만두었다. 그는 서른여섯 살이었다. 그와 레이첼은 코네티컷에 스탬포드에 예쁜 집을 지어서 세 명의 자녀인 꼬마 재키, 샤론, 데이비드와 함께 살았다. 아빠는 종종 우리를 데리고 그들을 방문했고, 꼬마 재키와 나는 낚시도 하고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 호수 한가운데에서 놀기도 했다. 재키는 칠천평정도 되는 그 집을 좋아했다. 가족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아빠가 말했던 대로 그리고 재키가 약속했던 대로 우리는 평생 친구로 지냈다.

상자 안으로 더 깊숙이 손을 넣자 손가락에 아빠와 내가 브루클린 다저스 경기에서 찍은 사진이 잡혔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사진을 바닥에 올려 둔 그 시절 재키와 로이를 처음으로 만났던 시즌 첫 홈경기 표 위에 올려두었다.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 그리고 엄마와 찍은 다른 사진들도 있었다. 작은 보석 상자를 꺼내서 열었더니 아빠의 도장이 새겨진 금반지가 나왔다. 나는 그것을 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 넣고 계속해서 상자를 뒤적거렸다. 그리고 나는 뭉개지고 색 바랜 브루클린 다저스 야구 모자를 찾았다.

상자 맨 아래에서 내가 여덟 살 때 재키가 나에게 준 그 글러브를 꺼냈다. 가죽이 뻣뻣했다. 여전히 내 손 크기에 맞지는 않았지만, 그 글러브가 그때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글러브 옆에는 무언가가 얇은 종이에 겹겹이 싸여 놓여있었는데, 내 인생에 유일한 크리스마스나무에 있던 천사장식이었다. 숨을 한번 들이 쉬었다. 나의 어린 시절의 보물들을 모아두신 아빠의 배려가 느껴졌다. 나는 그것들을 내 방 여기저기 흩뜨린 채 두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엄마를 찾았다. 내가 입을 뿔 때까지, 우리는 불 빛이 흐릿한 거실에 앉아있었다.

“재키에게 아빠 소식을 알려야 할까요?”

“네가 그에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단다, 스티브.”

나는 최근에 겪은 힘든 감정의 변화로 지친 엄마의 얼굴을 쳐다봤다. “고마워요, 엄마.” 내가 말했다. “지금 재키에게 전화할게요.”

다음 날 나는 렉싱턴가에 있는 재키의 사무실에서 재키를 만났다. 그는 다저스 팀의 파란색 유니폼이 아니라 날렵해 보이는 검정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직원들을 이끌고,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직원들의 삶에 변화를 만드는 사업가이다.

“아빠는 너를 자랑스러워 하셨어, 스티브.” 재키가 나에게 말했다. “아빠한테 들었는데, 의대에 가려고 한다면서. 맞니?”

“그랬었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왜?”

“우리가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넌 그냥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단다.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성적만 높으면 되. 그럼 돈은 따라 올 거야.”

재키가 확신을 담아 이야기 했다.

“그리운가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었다.

“야구 말이니?”

“네.”

“전혀,” 재키가 대답했다. “나는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는 것이 좋단다. 여기 일도 마음에 들고, 게다가 나는 시민권 운동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단다. 내 삶은 풍요롭고 행복하단다. 뒤돌아보면 안 돼, 스티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네가 집중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누구도 너의 꿈을 막을 수 없게 노력한다면, 넌 최고가 될 수 있을 거야.” 재키가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올해 하누카와 크리스마스가 하루 차이더구나.” 그가 말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깜짝 놀라서 내가 물었다.

“계속 기억한단다,” 재키가 웃으며 말했다. “레이첼과 내가 네 가족과 함께 하누카를 보냈던 그 해는 너무나도 특별한 해였단다. 네 할머니가 그 나무 때문에 나를 좀 곤란하게 만들었지.”

나는 웃었다. “제 기억엔 아저씨가 할머니를 아주 편하게 대하신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그 후로 몇 년 동안 아저씨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그거야, 스티브.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언제나 너에게 좋은 일로 돌아 올 거야. 나는 이렇게 말을 하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인생은 가치가 없다.’”

“맞는 말이네요. 재키 아저씨. 그게 바로 제가 의사가 되려는 이유예요.”

“너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리고 좀 서둘러라. 내 당뇨병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거든.” 재키가 말했다.

“몇 년 만 기다리세요.” 내가 약속했다.

“스티브,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너와 네 엄마가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란단다. 재키, 샤론, 그리고 데이비드가 엄청 신나하겠지! 레이첼도 너무나 바라는 일이란다.”

재키가 제안했다. “내가 그녀에게 네 엄마와 약속을 정해보라고 부탁할게. 네 생각은 어떠니?”

“코네티컷에서 함께 하자는 건가요?”

“맞아, 괜찮겠니, 스티브?”

“물론이죠.” 내가 대답했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처음으로 행복함이 느껴졌다.

일어서서 나를 끌어당겨 안아주면서 재키는 그를 보러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네가 힘들다는 건 알지만, 나는 네가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느끼고 조금 편안해졌으면 좋겠단다. 곧 또 보자.”

“네, 곧 만나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 나는 뒤돌아서 갔다. 재키의 힘과 우정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